차　례

제 1 과
만경대초가집에서 탄생

평양 만경대는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와 이름난 곳입니다.

아름다운 만경대에는 초가집 한채가 있습니다.

해방전 우리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쓰고살던 그런 수수한 초가집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의 이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그때 우리 인민들은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억눌려 살고있었습니다.

인민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일제놈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제놈들의 총칼에 짓눌리우고말았습니다.

그것은 인민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투쟁에로 이끌어줄 옳바른 령도자가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줄 옳바른 령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태양으로 탄생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통운이였으며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통운이였으며 대경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아드님께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깊은 뜻을 담아 **성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안어른들이 바라시는대로 나라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큰뜻을 키우시며 씩씩하게 자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정은 나라를 찾기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들의 가정이였습니다.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쳐부시는 싸움의 앞장에 서시였습니다.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께서는 집안식구들이 나라를 위한 싸움에 몸바쳐나서도록 교양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손자분들을 나라 찾는 싸움에 내세우시고 힘껏 뒤받침해주시였습니다.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일찍부터 나라 찾는 싸움에 나서신 선생님께서는 주체6(1917)년 봄에 조선국민회를 무으시였습니다.

조선국민회는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는 혁명조직이였습니다.

조선국민회를 지도하시면서 혁명투쟁을 벌리시던 선생님께서는 그만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안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우시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는 쇠약해지신 몸도 추세우지 못하신채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를 남기시고 압록강연안으로 자리를 옮기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날까지 나라 찾는 싸움을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는 나라를 찾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였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업을 돕는데 모든 힘을 다하시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기를 운반하신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는 녀성들을 묶어세워 나라 찾는 싸움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삼촌과 동생은 대원수님의 지도밑에 나라를 찾기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시였습니다.

외할아버님과 외삼촌도 일제놈들을 끝없이 미워하시면서 놈들과 굳세게 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매우 어렵게 살아온 가정이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집안식구들이 죽이라도 번지지 않게 하시려고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시였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이른새벽에도 쉬지 않으시고 동네를 돌며 진거름을 모으시였습니다.

밤이면 등잔불밑에서 새끼를 꼬고 짚신을 삼으시였으며 멍석을 트시였습니다.

할머님께서도 허리 한번 펴실 사이없이 일하시였습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집안어른들과 함께 낮에는 밭일을 하시고 밤이면 밤대로 무명낳이를 하시였습니다.

온 집안이 이처럼 고생스럽게 일을 하시였지만 일제와 지주놈들때문에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껍질도 벗기지 않은 수수로 타개죽을 쑤어 끼니를 에우군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정은 매우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언제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화목하게 사시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집안어른들의

마음을 이어받으시여 14살 어리신 나이에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실 굳은 맹세를 다지며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시였습니다.

민족-피줄과 언어, 지역 등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반일민족해방운동-자기 나라를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를 쳐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운동.

녀성운동-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운동. 다시말하여 녀성들이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참답게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운동.

제2과
선진사상을 따라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화전으로 가시여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습니다.

화성의숙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우는 군사정치학교였습니다.

학교는 휘발하라고 부르는 강기슭에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화전에 도착하신 다음날부터 군관학교생활을 시작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화성의숙입학을 축하해드렸습니다. 40명 남짓한 화성의숙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20살안팎의 청년들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창걸선생님을 비롯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아버님의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는 일에 한몸바쳐 나서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오후가 되면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5~10살 이상 되는 많은 청년들과 사귀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차 화성의숙생활에 익숙해지시였고 모든 과목학습에서 모범을 보이시였습니다.

그런데 화성의숙에 오신지 얼마 안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의숙에서 배워주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시였습니다.

화성의숙에서 배워준 과목
조선력사와 지리, 생물, 수학, 체육, 군사학, 세계혁명사

교원들은 조선독립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였지만 그들이 말하는 투쟁방법이란 개별적으로 일제의 우두머리놈들을 처단하는 방법 같은 그릇된것이였습니다. 군사훈련도 나무총을 가지고 시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제일 마음에 들지 않으신것은 학생들에

화성의숙기숙사와 그 내부

게 낡은 사상을 들이먹이는것이였습니다.

교원들이 낡은 사상을 들이먹이다나니 학생들은 조선이 해방된 다음에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느니, 봉건사회를 세워야 한다느니 하는 형편이였습니다.

화성의숙의 이러한 락후성들을 알게 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몇몇 동무들과 마주앉아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였습니다.

동무들은 화성의숙에 오면 새로운 군사지식도 배우고 눈이 탁 틔여 돌아갈줄 알았는데 별로 배우는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도 처음 이곳으로 올 때에는 화성의숙에 다소나마 기대를 걸고 왔는데 학교에서 취급하는 교육내용을 보나 조선독립에 대한 주의주장을 보나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우리 청년들은 그릇된 사상을 따를것이 아니라 조선독립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수 있는 선진사상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을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을 탐구해나가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에 대하여 쓴 책들을 열심히 읽으시였습니다.

그저 책의 내용만 보신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각을 이어가시면서 보시였습니다.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찾아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겠는가, 조국을 해방하는 투쟁에서는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가, 나라를 독립시킨 다음에는 어떤 길을 거쳐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손에 책을 잡으면 밤이 새는줄 모르고 깊이 파고드시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참된 길을 찾기 위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색과 탐구는 이렇게 시작되였습니다.

선진사상－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새롭고 진보적이며 앞서나가는 사상.

제 3 과
첫 혁명조직－타도제국주의동맹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화성의숙의 청년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청년학생들의 친근한 벗이 되시였습니다.

동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수학과목을 비롯한 여러 과목학습을 잘 도와주시였으며 그들과 허물없이 생활하시였습니다.

어쩌다 동무들이 앓기라도 하면 모든것을 다하여 간호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화성의숙 학생들과 조선인모범소학교 고등반 학생들사이의 축구경기에서 의숙의 한 학생이 다리를 상하였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를 업고 의원네 집으로 달려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가 치료를 받게 하신 다음 기숙사에 업어다 눕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날부터 기숙사에 들어가 그와 침식을 같이하시면서 열흘 남짓하게 간호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그 동무의 다리는 빨리 낫게 되였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두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직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김성주**동무한테서 받았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가 빨리 나왔으니 매우 기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서로 조선독립의 큰 위업에 뜻을 같이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그 길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동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동지애는 많은 청년학생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어느새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동무들은 서로 마음속 깊은 사연도 서슴없이 말하는 사이가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친숙해지시는 한편 그들이 선진사상으로 무장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때 화성의숙에서는 선진사상이 담긴 책들을 읽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런 책을 읽는 학생은 퇴학시키겠다고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책들을 멀리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사회주의가 어떤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나쁘다고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한사람한사람 만나시여 사회주의에 대한 책들을 읽도록 교양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명의 학생들이 비밀리에 책들을 돌려가며 읽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동무가 력사시간에 사회주의사상이 담긴 책을 몰래 보다가 교원에게 빼앗기게 되였습니다. 의숙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퇴학이니, 엄중처벌이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학생들속에서 선진사상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사회주의에 대한 책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다리를 다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간호를 받던 동무도 대원수님께 찾아와 책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선진사상을 따르게 되자 읽은 책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책을 읽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우리 혁명에 필요한 지식으로 다져나가게 하시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혁명동지들을 하나하나 묶어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혁명동지들로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였습니다.

혁명조직을 뭇는 자리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시고 아버님께서 무으셨던 조선국민회를 생각하시였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에서 첫 열매를 맺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임에서 조직의 이름을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 략칭은 《ㅌ.ㄷ》로 할것을 제의하시였습니다.

그리고 《ㅌ.ㄷ》가 투쟁해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이였습니다.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였습니다.

《ㅌ.ㄷ》의 첫 성원들은 혁명을 위해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모임에서 최창걸선생님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타도제국주의동맹 책임자로 높이 모시자는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모두가 그 제의를 열렬히 지지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청년들은 손에 손을 잡고 휘발하강가에 달려나가 노래를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처음으로 무으신 참다운 혁명조직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참다운 혁명조직의 지도밑에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제4과
새날소년동맹을 무으시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신지 얼마 지나서 화전을 떠나시였습니다.

그것은 길림과 같은 큰 도시에 자리를 잡고 혁명활동을 더 세차게 벌려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화전을 떠나 길림으로 가시기에 앞서 어머님께서 계시는 무송에 가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몰라보게 자라신 아드님의 모습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혁명활동을 크게 벌리기 위하여 길림으로 간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찬성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송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지자 동무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들은 살림이 어려워 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집에 파묻혀 갈길을 찾지 못하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하루빨리 그들을 깨우쳐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년들을 깨우쳐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송과 그 주변에 사는 조선소년들을 한명한명 찾아가 만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소년들의 혁명조직을 내오고 나라 찾는 싸움을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동무들을 모이게 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어떻게 찾겠는가 걱정만 하지 말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면 소년조직을 빨리 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내올 조직의 이름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가 무으려는 조직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하며 근로대중이 잘살수 있는 새 사회, 새날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조직의 명칭도 그에 맞게 〈새날소년동맹〉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새날소년동맹을 뭇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신 다음 주체15(1926)년 12월 15일 새날소년동맹을 무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으신 새날소년동맹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할 새날을 위하여,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할 광명한 새날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소년조직이였습니다.

새날소년동맹의 임무는 소년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군중을 깨우치고 각성시켜 그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게 하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새날》 신문을 내오신 날자
주체 17(1928)년 1월 15일

새날소년동맹을 무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활동을 옳바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맹원들속에서 독서모임, 토론회, 이야기모임 같은것을 자주 조직하게 하시였습니다.

신문 《새날》도 내오시였습니다. 신문은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을 반대하는 선진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맹원들이 군사훈련도 하고 연예선전대활동도 벌리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옳바른 지도밑에 새날소년동맹은 튼튼히 꾸려지고 동맹원들은 나어린 혁명가로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제5과
무송에서의 연예선전대활동

주체16(1927)년 1월 길림으로 가시여 길림육문중학교에 편입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러 혁명조직들을 뭇고 혁명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그해 겨울방학때는 연예선전대를 무어가지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 공연활동을 크게 조직진행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방학이 되자 무송에 오시여 연예선전대활동준비에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어느날 새날소년동맹의 사업정형을 알아보며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연극과 노래, 춤과 같은것을 잘 준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면 말로 백번 강조하는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잘된 예술공연은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줄뿐아니라 자기도 한번 그처럼 혁명적으로 살며 싸워보겠다는 강한 의욕을 갖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번 방학기간에 연예선전대를 크게 조직하고 잘 연습하여 무송시는 물론 그 주변 넓은 지역에 나가 순회공연을 한번 본때있게 해보자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 어머님께서 지도하시는 반일부녀회 회원들로 연예선전대를 무으시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종목도 새롭게 짜주시였습니다.

공연종목에는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같은 연극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때 무송에서 친히 창작하신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 연극연습을 조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함께 온 동무가 연극연습을 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신문《새날》을 내오시는 등 여러가지 사업을 지도하시는 바쁜 속에서도 공연연습을 하는 장소에 자주 나오시여 연예선전대원들이 연극을 잘 준비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미부터 생각해오시던 《조선의 노래》를 지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연예선전대원들에게 배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구체적인 지도밑에 연예선전대의 공연준비는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였습니다.

> **안중근**
>
> 1909년 10월 중국의 할빈역에서 조선을 강점하는데 앞장섰던 일본의 이등박문놈을 처단한 애국렬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공연준비가 완성되자 먼저 무송시내에서 며칠동안 공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합창 《조선의 노래》로부터 시작된 공연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았습니다.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열렬한 박수소리가 오래도록 울려퍼졌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순서는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연에 앞서 관중들앞에서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강도무리들을 기어코 조국강토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연설에 이어 연극이 시작되였습니다.

공연은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관중들은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쏴넘기는 장면에서는 공연도중이라는것도 잊고 모두 일어나 《조선독립 만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힘있게 부르며 통쾌해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움직일줄 몰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송시내에서의 공연에 이어 연예선전대를 이끌고 주변농촌에로 순회공연의 길에 오르시였습니다.

첫번째 목적지는 푸수허마을이였습니다.

3대의 말파리에 갈라탄 연예선전대는 눈보라를 일으키며 달리였습니다.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그러나 연예선전대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가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김철주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전진가》를 힘있게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을어구에서 연예선전대원들이 옷차림을 단정히 한 다음 대렬을 지어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마을에 들어서게 하시였습니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달려나와 연예선전대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연예선전대는 푸수허마을에서 이곳 인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3일동안이나 공연하였습니다.

푸수허마을에 이웃마을사람들까지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다나니 주변부락들에 공연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퍼지게 되였습니다.

두지동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찾아와 연예선전대를 자기네 마을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예선전대는 두지동에 가게 되였습니다.

첫 공연이 끝났을 때 이 마을 좌상로인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좌상로인은 하루에 천리를 걷는다고 소문난 로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로인을 만나시자 깍듯이 인사를 하시였습니다.

로인은 나들이를 갔다가 연예대소문을 듣고 급히 뛰여왔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김형직선생님의 아드님이 확실한가고 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시자 로인은 크게 감탄하더니 《내 한평생 이렇게 훌륭한 연예는 처음 보았네.》라고 말하였습니다.

로인은 그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인의 집에서 그와 여러가지 말씀을 나누시였습니다.

로인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그날 연예선전대가 공연한 가무 《단심줄》이 대단히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울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잘 싸워달라고 당부하는것이였습니다.

로인은 연예선전대원들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연예선전대는 두지동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서 설명절까지 쇠면서 여러날동안 공연활동을 벌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예선전대를 이끌고 여러 마을을 돌면서 한달가량 순회공연을 진행하시였습니다.

한편 이르는 곳마다에 혁명조직들을 꾸리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해 겨울방학에 조직진행하신 연예선전대활동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깨우쳐주고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 빛나는 혁명활동이였습니다.

백산청년동맹－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으신 일제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조직. 《백산》은 백두산을 말하는것이였다.

반일부녀회－강반석어머님께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지도방조를 받아 무으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녀성조직.

제6과
돈 한푼 받지 않는 학교를 세우시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간 조선사람들의 농촌마을들에는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조선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고싶어도 갈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시키는 학교를 세우시여 청소년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였습니다.

그 첫 학교가 바로 카륜의 진명학교였습니다.

그때 카륜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자그마한 한칸짜리 글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몇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을의 이러한 형편을 보고받으시고 반제청년동맹원들을 이 마을에 보내시여 학교를 새로 꾸리게 하시였습니다.

마을에 온 반제청년동맹원들은 마을사람들과 힘을 합쳐 집 한채를 새로 잘 꾸리고 책상과 의자까지 갖추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진명학교》라고 쓴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시키는 진명학교가 나왔다는 소문이 잠간사이에 여러곳으로 퍼져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앞을 다투어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그들이였지만 돈을 안 받고 공부시킨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찾아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공부시켜준다는것이 정말인가고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왜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긴 처음 듣는 말이니 곧이 들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진명학교에서는 배우려는 사람은 누구나 돈을 받지 않고 공부시킨다고 말씀해주시였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정을 안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진명학교에서 수업시작을 알리는 첫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너무 기뻐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무료로 공부시키는 학교는 그후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여러 마을들에 생겨났습니다.

고유수의 삼광학교, 오가자의 삼성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들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학교사업도 세심히 지도하고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업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교과서를 몸소 쓰시였습니다.

낮에는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시고 밤에는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교과서를 한자두자 써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몸소 쓰신 교과서를 안겨주시고 그들이 참된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공부를 잘하여야 하지만 체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며 군중들앞에서 연설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학교들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시키면서 연예선전대활동과 체육활동도 조직하고 군사훈련에도 힘을 넣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 학용품들을 거저 내주도록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속에서 학생들은 마음껏 배우면서 참된 혁명가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반제청년동맹-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일제를 반대하는 청년들을 더 많이 묶어세우기 위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개편하여 무으신 혁명조직.

제7과
길림을 들었다놓은 반일투쟁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눈부신 혁명활동에 의하여 길림과 그 주변의 넓은 지역에 혁명조직들이 무어지고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혁명적으로 각성되여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청년학생들을 이끌고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을 크게 벌릴 준비를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조직책임자들을 비밀모임장소인 북산공원 약왕묘 지하실로 부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중국의 길림과 우리 나라의 회령사이에 철도를 놓으려고 책동하는 일제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이번 투쟁에서는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 〈일본상품을 배척하자!〉,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와 같은 투쟁구호들을 내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투쟁을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분공조직을 하시였습니다.

소년회에는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며 수상한 모든 사실들을 공청조직에 보고할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회의가 있은 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시위준비를 위하여 밤낮이 따로없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격문과 삐라만 해도 수만매나 준비되였고 시위군중을 보위하기 위한 규찰대도 조직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지도밑에 투쟁준비는 빈틈없이 완성되여갔습니다.

투쟁의 승리는 이미 그 시작전에 마련되여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7(1928)년 10월 어느날 투쟁의 신호를 올리고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이날 새벽 선전대는 길림의 거리들에 삐라를 뿌리고 격문을 붙이였습니다. 2~3명으로 무어진 소년회의 감시조들도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학교들에서 투쟁에 나서는 모임을 가진 청년학생들이 거리를 메우며 물밀듯이 군중대회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백명의 반동군대와 경찰놈들이 총칼을 들고 대렬의 앞길을 막아나섰습니다.

대렬은 더 전진하지 못하고 구호만 웨치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즉시 규찰대를 발동시키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규찰대성원들과 어깨를 겯고 앞장에서 놈들의 총칼을 헤치며 나아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그 모습을 우러르며 용기백배해진 시위군중은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이 놈들의 총검을 물리치고 집결장소에 다 모이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중대회를 여시였습니다.

한손에 모자를 틀어쥐고 나서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가 길회선철도를 놓으려는것은 저들의 침략무력을 빨리 끌어들이며 남의 나라 재부를 마음대로 빼앗아가려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을 까밝히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중청년학생들은 단결하여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웁시다.》라고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그러자 청년학생들은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는 프랑카드를 들고 시

위로 넘어갔습니다.

온 길림시가 떠나갈듯 하였습니다.

시위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여러조로 나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선동연설을 하였습니다.

길림에서 시작된 반일투쟁은 넓은 지역에로 번져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시위투쟁이 크게 번져가자 일본상품배척투쟁을 함께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기세충천한 시위군중은 《일본상품을 배척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일본인상점거리로 밀려갔습니다.

일본상점주인들은 시위투쟁에 겁을 먹고 모두 일본령사관안으로 도망쳐들어갔습니다.

시위군중은 상점문들을 짓부시고 그안에 있는 일본상품들을 꺼내여 길가에 무져놓은 다음 불을 질렀습니다.

거리마다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떤 상품들은 송화강에 무더기로 쓸어넣었습니다.

투쟁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데 당황한 놈들은 시위군중에게 총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규찰대를 시안의 여러곳에 파견하시였습니다.

규찰대원들은 몽둥이들을 들고 골목에 지켜서있다가 떼를 지어 싸다니는 경찰놈들과 격투를 벌렸습니다.

이렇게 원쑤놈들을 짓눌러놓으며 투쟁은 40여일동안이나 계속되였습니다.

일제놈들은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이 단결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는것을 보고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길림을 들었다놓으며 벌

어진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소년회—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길림의 조선소년들로 무으신 혁명조직. 정식 명칭은 조선인길림소년회이다.

공청—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된 청년들로 무으신 조선청년들의 전위조직. 정식 명칭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다.

제8과
길림감옥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령도밑에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첫 승리를 이룩한 청년학생들의 기세는 날을 따라 높아갔습니다.

여기에 겁을 먹은 일제놈들은 앞잡이들을 부추겨 길림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는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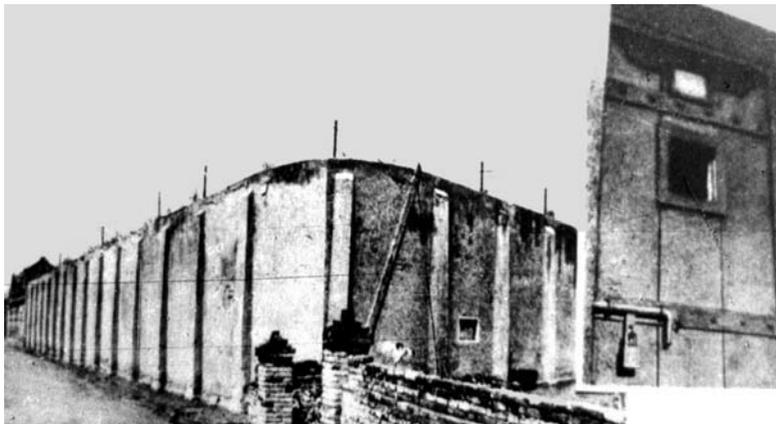
이러한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조직들과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다가 그만 반동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18(1929)년 가을부터 길림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게 되시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혁명활동을 멈추지 않고 조직들을 지도하시였습니다.

감옥밖의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자니 조직들과 련계를 맺는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간수들을 교양하여 리용하는 방법으로 풀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그때 감옥에서는 감방을 수리하면서 청년학생들을 중국인죄수들과 얼마동안 같이있게 하였습니다.

길림감옥과 감방문

그러던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한 감방안에 있던 중국인죄수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이 몹시 거칠다보니 누구도 그를 돌봐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시고 간수를 시켜 약도 가져오게 하시였습니다.

그 죄수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따뜻한 간호를 받고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죄수를 아니꼽게 보아오던 리가성을 가진 간수는 이것을 보고 몹시 감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리간수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어렵게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길림감옥 간수들가운데서 비교적 온순한 사람이였는데 밥을 벌어먹기 위해 간수로 일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리간수에 대하여 이모저모로 알아보신 후 그를 쟁취하기로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 그가 동생의 약혼식을 앞두고 례장감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와한다는것을 알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감옥에 찾아온 동무들에게 조직을 발동하여 이 문제를 풀어주게 하시였습니다.

며칠후 리간수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대원수님께 공산주의자라는것이 사실인가고 물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릇된 소문을 듣고 묻는 말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땅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라는것을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리간수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탁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감옥밖의 혁명조직과 련계를 맺고 조직들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한편 일년내내 해별 한점 들지 않아 곰팡이냄새가 나고 벽에는 얼음이 져 녹을줄 모르는 감방안에서 조선혁명에 대한 깊은 사색을 이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만을 해왔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와 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시였습니다.

조선혁명에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감옥에서 하루빨리 나가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놈들에게 《죄없는 학생들을 왜 감옥에 몇달씩 가두어넣고있는가! 죄가 있으면 하루빨리 재판을 하라!》하고 들이대시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빨리 내보내라는 요구를 내걸고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단식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감옥밖에서도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놈들은 굳게 뭉친 청년학생들의 투쟁앞에 굴복하고야말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5월초 조선혁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안으시고 길림감옥을 나서시였습니다.

간수—일제놈들이 주인행세를 할 때 감옥에서 《죄수》들의 모든 움직임을 직접 감시하고 마구 통제하던 맨 아래급의 관리.

제9과
카륜회의가 준비되던 나날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길림감옥에서 나오시는 길로 감옥에서 무르익히신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지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길림시 주변농촌인 신안툰으로 향하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안툰으로 가시는 길에서 차광수선생님을 만나시였습니다.

차광수선생님은 너무 기뻐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두팔로 안아올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는 무장투쟁을 벌려야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차광수선생님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열렬히 찬동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신안툰에 가시여 김혁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동지들과도 무장투쟁을 벌리는 문제를 놓고 의논하시였습

니다.

그들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혁명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당면하게 해야 할 과업들을 토의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어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였습니다.

길림에서의 사업을 마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돈화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돈화에 이르시여 무송에서 가깝게 지내시던 집을 찾아가시였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쇠약해지신 몸을 추세워드리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국수를 좋아하신다는것을 잊지 않고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분틀을 구해다가 국수를 눌러드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은 먼길을 걸어가서 절임한 송어를 사다 밥상에 놓아드렸습니다. 그 집 사위도 몸을 추세우는데 좋은 약을 마련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정성을 고맙게 여기시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혁명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몸이 나아질 때까지 푹 쉬시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몸이나 돌보자고 여기에 온것이 아니라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돈화현 사도황구에 김혁, 차광

수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해 5월 종파분자들이 일으킨 폭동이 어떻게 번져지고있는가를 알게 되시였습니다.

종파분자들은 원쑤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타도하게 하였고 지어는 학교와 발전소에까지 불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제와 중국동북지방을 통치하던 반동들에게 조선혁명가들을 탄압할수 있는 구실만을 주었습니다.

놈들은 피눈이 되여 날뛰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조선혁명가들과 죄없는 인민들이 죽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도황구에 모여온 청년들은 《조선민족의 피가 아깝다.》고 하면서 너무도 분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인민들에게 옳바른 투쟁의 길을 밝혀준다면 혁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런 투쟁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스스로가 주인이 되여 투쟁의 길을 밝혀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내가 옥중에서 생각해둔것이 있는데 동무들의 의견을 듣고싶다.》라고 하시면서 감옥에서 무르익히신 생각들을 설명해주시였습니다.

혁명동지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문제들을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보내시면서 맡은 임무를 빨리 끝내고 6월 하순에는 카륜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주시였습니다.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참된 길을 밝히는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지들을 떠나보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더 혁명활동을 하시다가 카륜으로 가시였습니다.

6월 하순이 되자 혁명동지들은 카륜으로 모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카륜에 오시여 회의준비를 완성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때 회의보고를 준비하시면서 무장을 들고 일제와 싸우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를 증오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이끌어나갈 당을 창건할데 대한 문제도 밝히시였습니다.

카륜회의에서 하실 보고는 이렇게 준비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 그것을 회의에 온 동지들의 토의에 붙이시였습니다.

낮에는 동지들과 벌에 나가 일을 하시면서 토론하고 밤이면 진명학교에서 의논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깊은 사색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카륜회의준비는 완성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밑에 주체19(1930)년 6월 30일 력사적인 카륜회의를 여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무장투쟁—침략자들의 억압밑에서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적들과 맞서싸우는 혁명투쟁.

종파분자—자기 개인과 자기 파의 리익을 위하여 수령의 령도를 받들지 않고 통일단결을 파괴하는자.

제10과
첫 무장조직—조선혁명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카륜회의후 회의에서 내놓으신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을 뭇기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함께 고유수로 떠나시였습니다.

조선혁명군을 뭇는것은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첫 사업이였습니다.

카륜에서 고유수까지는 200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카륜을 떠나 걸음을 다그쳤지만 하루낮동안에 다 갈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혁명동지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밤에 좀 휴식하고 다시 떠나자고 대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념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건강으로 말하면 김혁동무가 제일 나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김혁선생님은 당황하여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김혁동무가 견딜만하다면 마음을 놓을수 있다고 하시며 좀 힘겨워도 기운을 내여 이 밤으로 고유수땅에 들어서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휴식없이 행군을 다그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고유수에 도착하신것은 자정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먼길을 오신 피로도 풀지 않으시고 조선혁명군결성사업을 다그치시였습니다.

먼저 고유수에서 활동하던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조선혁명군을 내오기 위한 준비정형을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결성준비를 하면서 동지들이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한 문제들을 바로잡아주고 보충해주시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7월 6일 조선혁명군을 무으시였습니다.

조선혁명군결성식은 고유수의 삼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였습니다.

모임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몸소 키우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결성식에서 영광스러운 조선혁명군의 첫 대오에 들어선 혁명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였습니다.

이어 조선혁명군이 싸워나갈 길을 밝혀주는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의 사명과 기본임무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릴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나가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선혁명군앞에 나선 이 어렵고도 무거운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여기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을 마치시면서 피끓는 청춘의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습니다.

모임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를 치면서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를 타도하자!》는 구호와 《조선혁명 만세!》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군 대원들에게 무기를 수여하시였습니다.

또한 《조선혁명군》이라는 커다란 도장이 찍힌 붉은 띠를 내주시였습니다. 조선혁명군 대원이라는것을 증명하는 띠였습니다.

무기를 받아안은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전사라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로 가슴 불태우며 《혁명가》를 소리높이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활동을 벌리시여 첫 무장조직—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습니다.

청년공산주의자—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몸소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조직에 받아들여 키우신 새 세대의 청년혁명가.

제11과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며

카륜회의가 있은 후 힘차게 전진하던 우리 혁명은 또다시 난관을 겪게 되였습니다. 종파분자들이 또다시 부질없는 폭동을 일으켰던것입니다.

이 폭동을 구실로 원쑤놈들은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조직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혁명가들이 잡혀가거나 몸을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지들에게 《적들의 폭압은 날로 더 우심해지고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시련을 겪고있는 지구들을 돌아보고 와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먼저 길림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때 길림의 형편은 험악하였습니다.

혁명조직들은 파괴되고 거리와 골목마다에는 원쑤놈들만이 욱실거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변장을 해가시며 혁명동지들을 만나 그들에게 해야 할 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길림에서의 사업을 마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기차를 타시고 해룡, 청원일대로 떠나시였습니다.

놈들은 기차안에서도 감시와 수색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차안에서 소학교시절의 동창생인 장울화를 만나게 되시였습니다.

그는 잘사는 집에서 태여났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지도를 받아 혁명의 길에 나선 중국청년으로서 대원수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뵈옵게 된 그는 너무 반가와 어쩔줄 몰라하며 대원수님을 1등칸으로 모시였습니다.

경찰놈들은 1등칸에도 드나들며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국신사복을 쭉 뽑아입은 장울화와 함께 계시였기때문에 놈들의 의심을 받지 않으시였습니다.

어느덧 렬차가 해룡역에 멎었습니다.

그런데 역에서는 일제경찰놈들이 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빠짐없이 검열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위험한 순간이 닥쳐왔다는것을 느끼시며 차창밖을 내다보고계시였습니다.

이런 때 장울화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기와 함께 가시자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원래 다른 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장울화와 헤여지게 되면 적들의 단속을 피하기 어려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마침 장울화의 아버지가 가병들까지 거느리고 아들을 맞으러

역에 나와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장울화와 함께 고급마차를 타시고 가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역전거리를 빠져나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 해룡, 청원일대의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신 다음 다시 길림을 거쳐 교하로 가시였습니다.

교하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동지들을 만나실 때까지 림시로 지낼수 있는 곳을 찾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이전부터 잘 알고계시던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나라 찾는 싸움을 그만두고 제 목숨 하나 이어가는데만 정신을 팔고있었습니다.

한때 독립군에서 중대장을 하던 한사람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자 자기에게 화가 미치지나 않을가 하여 겁부터 앞세웠습니다.

또 한사람은 반가와는 하면서도 음식점에 가서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는 헤여지자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가시여 한 조직원의 집을 찾아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집은 비여있었습니다. 옆집 녀인에게 물어보시였으나 알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놈들이 그 집쪽으로 막 달려오는것이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였습니다.

그 집 녀인은 놀란 눈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짐작이 가는듯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변이 위험한것 같은데 어서 부엌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경찰놈들이 물으면 자기가 다

대답하겠으니 불이나 때시라고 하였습니다.

잠시후 그 집에 달려든 놈들은 부엌문을 열어제끼고 주인아주머니에게 방금 이리로 온 청년이 어디로 갔는가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녀인은 자기 집에는 아무도 온 사람이 없다고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궁앞에 앉으시여 불을 때고계시였습니다.

경찰놈들은 이리로 오는걸 보았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서 다른 집으로 밀려갔습니다.

놈들이 사라진 다음 그 녀인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경찰놈들이 마을에서 떠나갈 때까지 《주인》노릇을 더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후 경찰놈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놈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심부름을 시킬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녀인은 앓는 사람이 어떻게 심부름을 가겠는가고 하면서 자기가 대신 갔다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모를 한 녀인의 도움으로 뜻밖에 들이닥친 아슬아슬한 고비를 아무일없이 넘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혁명가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인민들밖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느끼시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처럼 애써 찾던 조직원을 만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혁명조직을 복구하기 위한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걷고걸으시는 길을 따라 혁명조직들은 복구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다시금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습니다.

제12과
오가자를 혁명촌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준비하시면서 혁명가들이 의거해서 싸울 농촌지역들을 혁명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가자를 농촌혁명화의 본보기로 정하시고 주체19(1930)년 10월부터 여러달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마을을 혁명화하시였습니다.

오가자에서는 변대우라는 로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마을의 모든 일을 돌보면서 새로운 선진사상이 들어오는것을 엄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오가자에 오시여 이런 실태를 알아보신 다음 변로인을 돌려세우는 일부터 해나가기로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찾아온 변로인의 아들은 로인들이 뭐라건 말건 우린 우리끼리 조직들을 내오고 딴가마밥을 먹으면서 오가자를 사회주의동네로 만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오가자가 둘로 쪼개질수 있습니다.》라고 그를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변로인을 여러번 만나시였습니다. 로인을 만나 이야기하실 때면 그가 리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반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례절을 차려 다 들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로인에게 카륜회의에서 밝히신 조선혁명의 참된 길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서 변로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후 로인은 마을사람들에게 오가자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통

채로 떠맡기고 대원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힘껏 돕기나 하자고 하였습니다.

오가자를 혁명화하기 위한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변로인을 돌려세우신 다음 마을을 혁명촌으로 개조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을에 있던 조직들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직에 받아들이게 하시였습니다.

한편 마을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창작하신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도 공연하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을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삼성학교에서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수 있게 해주시고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야학을 여시였습니다.

그런데 녀자들이 야학에 나가는것을 반대하는 로인들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며느리를 야학에 내보내지 않는 박로인의 집을 찾아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로인이 새끼를 꼬는 어둠침침한 방으로 들어가시였습니다.

박로인과 허물없이 마주 앉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아버지께서 새끼를 꼬시는것을 보니 고향생각이 납니다.》라고 하시면서 벼짚을 끌어당겨 손수 새끼를 꼬기 시작하시였습니다.

그러자 로인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새끼를 꼬시는것을 한사코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로인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시면서 손이 몹시 거칠어졌다고, 고향에 계시는 자신의 할아버님의 손도 이렇다고 하시였습니다.

로인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거친 손을 맡긴채 대원수님을

우러러보기만 하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인에게 야학에 나와 배우는것이 왜 필요하며 글을 배우는것이 나라를 해방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대하여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깊이 뉘우친 박로인은 며느리를 야학에 내보내게 되였습니다.

학교와 야학에서는 글만 배워준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나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에 의하여 오가자는 낡은 사상에서 벗어나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마을로, 혁명하는 마을로 되였습니다.

제13과
태양의 존함에 깃든 이야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혁명동지들과 인민들로부터 **김일성**동지라는 존함을 받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동지들은 나의 이름을 처음에는 조선혁명의 향도성이 되여달라는 의미에서 한 일자에 별 성자를 써서 한별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태양이라는 의미에서 날 일자에 이룰 성자를 써서 **김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혁명동지들로부터 처음에는 **한별**동지라는 존함을 받으시였습니다.

혁명동지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한별**동지로 부르기 시작한것은 주체17(1928)년 10월부터였습니다.

이무렵 우리 인민들은 조선혁명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줄 참된

령도자가 나서기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열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신 후 길림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활발히 벌리시자 사람들의 마음은 대원수님께로 쏠리였습니다.

참된 령도자를 찾아헤매던 청년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찾아 길림으로 모여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혁명의 길에 내세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이 나날에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높이 받들어모실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생각을 거듭해오던 혁명동지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한 일자, 별 성자를 써서 **김일성**(金一星)동지 또는 **한별**동지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캄캄한 밤하늘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새날을 안아오는 샛별, 조선혁명의 향도성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김혁선생님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우러르며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동지들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른다는것을 아시고 엄하게 나무람하시였습니다.

하지만 혁명동지들은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더욱 억세게 싸울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지들의 믿음이 클수록 인민을 위하

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발걸음이 닿고 대원수님의 지도가 미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의 믿음과 존경은 더욱더 커갔습니다.

오가자마을에서 제노라고 하던 변로인은 진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두고보라구, 앞날의 조선을 이끌 사람은 그 **김성주**청년일걸세!》

날이 감에 따라 인민들속에서는 그처럼 위대하신분을 어찌 샛별에만 비길수 있겠는가, 마땅히 온 누리를 비쳐주는 태양에 비겨야 할것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존함을 날 일자, 이룰 성자를 써서 **김일성**(金日成)동지로 고쳐부르게 되였습니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갔습니다.

제14과
《머슴군》으로 가장하시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0(1931)년 12월 명월구회의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안도에 자리를 잡으시고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시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문제가 나서게 되였습

니다. 그것은 푸르허마을을 혁명적인 마을로 꾸리는것이였습니다.

푸르허마을은 그때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마을이였습니다.

이 마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안도와 잇닿아있었고 중국동북지방의 여러곳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원수님께서 파견하시는 공작원들이 이 마을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혁명조직에서는 이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공작원들을 파견하였으나 가는족족 실패하였습니다.

밀정이 배겨있는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마을에 조직원이 한사람 있었으나 그의 힘만으로는 어찌할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푸르허마을에 들어가 그 마을을 혁명적인 마을로 만들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마을의 조직원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제 마을에 돌아가면 동무네 집에 일손이 딸려서 머슴군총각을 하나 얻어온다고 소문을 퍼뜨리오. 그러면 내가 동무네 집에 가서 머슴군노릇을 하겠소.》

조직원은 깜짝 놀라면서 반동이 심한 마을에 그것도 머슴으로 들어가시겠다니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내 그를 설복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1(1932)년 2월 어느날 머슴군으로 가장하고 조직원과 함께 소발구를 타시고 푸르허마을로 들어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녘에 말을 탄 경찰놈들이 갑자기 마을에 달려들었습니다. 벌써 어느 놈이 일러바쳤던것입니다.

경찰놈들은 조직원의 집마당으로 몰켜왔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태연히 나무를 패고계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채 돌아가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부터 이른새벽에 일어나 주인집의 물도 긷고 나무도 패고 소여물도 끓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나무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발구를 끄시고 조직원과 함께 산으로 가시였습니다.

산에 가시여서는 문건도 보고 나무도 하고 사업토론도 하시면서 조직원에게 한가지한가지씩 일거리를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마을에 내려오시여 혁명조직을 내오는 사업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 없는 마을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그저 무던한 《머슴군》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아주머니들은 우물가에 얼어붙은 얼음을 까달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심부름을 해달라고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맞은켠 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동네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떡을 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해보신적이 없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척 딱하시였습니다.

이때 조직원이 《머슴군》은 어제 나무하러 갔다가 팔을 다쳤다고 하면서 자기가 대신 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떡이 다되자 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떡을 그릇에 담아주면서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만은 《머슴》이라고 손에 쥐여주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진짜머슴군으로 알아주는것이 오히려 혁명사업을 벌리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을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능숙하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옳바른 지도밑에 얼마후 이 마을은 혁명적인 마을로 꾸려졌습니다.

마을에는 혁명조직이 생겨나 활발히 움직이고 밀정놈은 핵심청년들에게 붙잡혀 처단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사업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였습니다.

제15과
우사령과의 담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준비는 힘있게 다그쳐졌습니다.

작은 규모의 유격대들이 무어지고 피어린 투쟁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무기도 적지 않게 마련되였습니다.

그러나 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에는 또 하나의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여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인반일부대와 손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중국인반일부대들은 일제놈들의 나쁜 선전에 넘어가 조선혁명가들을 마구 잡아죽이는 행동까지 꺼리낌없이 감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하여 안도에 자리잡고있는 반일부대 우사령과 담판할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동지들은 반일부대가 조선혁명가들을 무작정 해치는데 중국동무들가운데서 유능한 청년을 골라 보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혁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몇명의 동지들과 함께 반일부대 사령을 찾아 떠나시였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우사령부대와 맞다들게 되시였습니다.

한 청년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피하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니, 맞받아나가자구!》라고 하시며 그냥 걸어나가시였습니다.

반일부대 병사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동지들을 다짜고짜로 체포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우리도 당신들처럼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인데 왜 붙잡으려 하는가고 호령하시였습니다.

그 말씀에 얼떠름해진 반일부대 병사들은 머뭇거리다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조선사람이 아닌가고 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떳떳하게 조선사람이라고 대답하신 다음 급히 토의할 문제가 있어 당신네 사령한테로 찾아가는 길이니 안내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반일부대 병사들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느 한 곳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뜻밖에도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시였습니다.

그는 우사령부대의 참모장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사령이 있는 곳으로 가시여 그를 만나시였습니다.

우사령은 자기가 제일인체 하며 우쭐거리고 고집도 센 사람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인품에 눌리워 대원수님을 매우 귀한 손님으로 정중하게 맞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여 함께 싸울데 대한 문제를 놓고 우사령과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담판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반일부대 병사들이 70~80명이나 되는 조선

청년들을 붙잡아왔습니다.

우사령은 그들을 바라보며 또 공산당원들을 잡아온 모양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가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드러내였습니다.

그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잡혀온 조선청년들이 무리죽음을 당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사령에게 무엇때문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고 하는가고 따져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일제놈들의 악랄한 거짓선전에 넘어가지 말고 조선혁명가들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청년들을 마구 죽이지 말고 그들이 일제놈들과 싸우게 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이 정당하다는것을 우사령은 깊이 느끼였습니다.

그리하여 70~80명의 조선청년들은 구원되고 우사령은 조선혁명가들과 손잡고 일제와 싸울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는 길에 가로놓였던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되였습니다.

제16과
뜻깊은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21(1932)년 봄에 이르러 반일인민유격대창건 준비사업은 마감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사업을 완성해나가시였습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마지막사업에서 군복을 만드는 일은 중요한 일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지들과 군복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겠는가를 구체적으로 토의하시였습니다.

유격대의 군복은 가둑나무물을 들인 천으로 지으며 왼쪽가슴에는 다섯모가 난 붉은 천을 오려붙이고 거기에 중대번호를 써넣기로 하였습니다.

군모에는 붉은별을 달고 다리에는 흰 행전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군복형식이 정해지자 강반석어머님께서 부녀회원들과 함께 군복을 짓기 시작하시였습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앓으시면서도 친히 재봉기도 돌리시고 혁명군대가 입게 될 첫 군복이니만큼 탄탄하고 알뜰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녀회원들의 일손을 찬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격대의 첫 군복은 훌륭히 준비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4월 어느날 회의를 여시고 유격대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심사도 하시고 유격대창건식 날자와 장소도 정하시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아침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을 가지시였습니다.

유격대창건식은 안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등판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이깔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등판의 공지에는 새 군복을 입고 무기를 갖춘 대원들이 정렬해있었습니다.

대렬의 우측에서는 《반일인민유격대》라고 쓴 붉은기가 나붓기고있었습니다.

한쪽 변두리에는 인민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대렬앞으로 나오시였습니다.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우러러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신호수가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차광수선생님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대렬보고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면서 대렬을 사열하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대한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직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혁명적인 무장력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또한 반일인민유격대는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운다는것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을 마치시면서 《모두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갑시다.》라고 힘있게 호소하시였습니다.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또다시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습니다.

그날로부터 한주일이 지난 5.1절에 반일인민유격대는 붉은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북을 치면서 열병행진을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머님의 뜨거운 손길이 어린 군복을 입고 뜻깊은 창건식을 가진 반일인민유격대를 이끄시고 무장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사열―정렬한 군대의 앞을 지나면서 보는것.

행전―몸차림을 가뜬하게 하려고 천과 같은것으로 발목에서 장딴지우에까지 바지가랭이우에 눌러싸는 물건.

제17과
유격대의 첫 전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후 벌리신 첫 전투는 그해 5월 소영자령에서 있은 매복전이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강화하고 독립군과 련계를 맺기 위하여 남만으로 가실 준비를 갖추고계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대의 첫 전투를 벌릴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이날 부대의 참모장인 차광수선생님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남만으로 갈바에는 빨리 떠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에 도로가 있어 적들이 자주 다니고 유격대가 자리잡고 있는 소사하마을의 식량사정이 곤난하다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제의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참모장동무, 기왕 우리가 총을 들고 일어난 이상 한번 싸워보는것이 어떻소?》

차광수선생님은 전투를 하자는 말씀인가고 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대를 무었으니 이제는 싸움을 해야지 적이 코앞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구경만 하고있을 멋이야 없지 않은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전투가 없이는 대원들을 단련시킬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남만으로 가는데 필요한 물자들도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결심을 받아안은 차광수선생님은 한 동무와 함께 도로에 나가 정찰을 해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정찰보고를 받으시고 소영자령에서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적의 수송대를 들이칠 계획을 세우시였습니다.

소영자령은 안도에서 명월구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있는 령인데 적들은 이 령을 넘어 안도지구에 있는 제편 놈들에게 군수물자를 날라다주고있었습니다.

때마침 무기와 후방물자를 실은 위만군의 마차수송대가 명월구에서 안도쪽으로 떠났다는 련락이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마차수송대를 들이치기 위해 대원들을 이끄시고 야간행군으로 소영자령으로 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대원들을 길 량쪽에 매복시키시였습니다.

이날따라 보름달이 떠서 하늘땅을 환히 밝혔습니다.

밤이 깊어갈무렵 적의 수송대가 소영자령에 나타났습니다.

적의 수송대는 모두 12대의 말파리로 되여있었습니다.

마차행렬이 첫번째 매복조를 지나 두번째 매복조앞으로 한 절반쯤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위우에 올라서시면서 권총을 쏘시였습니다. 그러자 골짜기가 깨져나갈듯이 총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졌습니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적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아무데나 대고 눈먼 총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여명의 놈들이 마차에 의지하여 총을 쏘면서 발악하였습니다.

전장을 살피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돌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적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적들은 두손을 버쩍 쳐들고 투항하였습니다.

유격대의 첫 전투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적들에게서 빼앗은 무기들과 식량을 마차들에 싣고 무주툰으로 돌아온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우등불가에 빙

둘러앉았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승리의 신심에 넘쳐 연설도 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때 신심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면 우리는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지휘밑에 첫 전투에서 승리한 반일인민유격대는 더 큰 싸움의 길에 나섰습니다.

매복전—전투를 벌리기 유리한 곳에 숨어서 적을 기다리다가 적이 나타나면 갑자기 족치는 전투.

위만군—일제놈들이 중국의 동북지방을 강점하고 꾸며냈던 괴뢰만주국의 군대.

제18과
온갖 슬픔을 이겨내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첫 전투가 있은 후 몇달동안 부대를 이끄시고 남만에로의 머나먼 길을 다녀오시였습니다.

그해 8월 안도현 량강구에 돌아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북만에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시였습니다.

남만으로 떠나실 때 심하게 앓으시던 어머님을 찾아가 뵙고싶은 간절한 생각도 뒤로 미루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차광수선생님이 약을 구해가지고와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어머님을 만나뵙고 오시라고 몇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어쩔수 없으시여 약꾸레미를 들고 어머님을 만나뵙기 위해 소사하 토기점골로 향하시였습니다.

몇달전 남만에로 행군길을 떠나기에 앞서 좁쌀 한말을 가지

고 찾아가시였을 때 몹시 앓으시면서도 집걱정은 아예 말고 어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한푼두푼 모아두셨던 돈 20원을 주머니에 넣어주신 어머님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병이 그전보다 더 심해진것만 같아 가슴을 조이며 걸음을 다그치시였습니다.

소사하집

토기점골에 이르러 외나무다리를 건느시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불안한 생각은 더해졌습니다.

그 외나무다리를 건느실 때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발자국소리를 가려들으시고 방문을 열군 하시던 어머님이신데 이날만은 방문이 열리지 않았던것입니다.

굴뚝에서 저녁밥을 짓는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앞에 다가서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불안한 생각을 누르시며 가까스로 방문을 여시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번 하시였습니다.

그때 동생 김철주선생님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품에 안겨들며 왜 인제야 오시는가고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동생도 안겨들어 울음을 터쳤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생들의 통곡에서 어머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들고오신 약꾸레미를 떨어뜨리며 통곡하는 두 동생을 그러안으시였습니다.

얼마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철주야,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없었니?》하고 물으시였습니다.

마당에 와있던 이웃집 녀인이 김철주선생님을 대신하여 어머님의 마지막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녀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였습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날

주체 21(1932)년
7월 31일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아들 **성주**가 오거든 내가 대하듯 해주세요. 왜놈들이 살아있고 조선을 독립하지 못한채 오거든 내 무덤을 파가지도 못하게 해야 해요. 아니, 문전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성주**는 싸우다가 그저 돌아오지는 않을거예요.》

어머님께서는 김철주선생님에게 형님을 잘 도와드리라는 말씀도 남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받쳐오르는 설음을 누르시며 두 동생을 데리고 어머님의 묘를 찾으시였습니다.

묘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벗어든 군모를 두손으로 마주잡으시고 오래도록 서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얼굴에는 크나큰 슬픔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마지막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면서 기어이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을 찾으리라 다시한번

굳은 맹세를 다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생들을 소사하의 한 조직원에게 부탁하시고 그길로 부대에 돌아오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부대에 찾아오신 동생 김철주선생님을 만나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신 김철주선생님께서는 몇번이나 형님과 함께 유격대에서 싸우게 해달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생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그 소원을 풀어줄수 없으시였습니다.

동생이 사업하는 공청조직을 먼저 생각하시였고 나어린 막내동생을 홀로 남겨두는것도 마음에 걸리시였던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몹시 서운해하시는 동생에게 공청사업을 하다가 때가 되면 혁명군에 오라고 타일러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생을 그대로 돌려보낼수 없으시여 객주집으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두부에 마실줄 모르는 술 한병을 앞에 놓으시고 사랑하는 동생과 마주앉으시였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너무도 일찌기 아버님을 잃으시고 그로부터 몇해후에는 조국땅에 나가 싸우시던 삼촌 김형권선생님께서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받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으시고 형님을 따라가겠다고 찾아온 동생과도 헤여지셔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괴롭고 아픈 심정을 애써 누르시며 동생에게 《철주야, 너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 형을 용서해다구.》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철주선생님께서는 형님의 뜻을 받들고 부대를 떠나가시였습니다.

그후 선생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시다가 주체 24(1935)년 6월에 장렬한 최후를 마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량강구에서 김철주선생님과 헤여지신것이 동생과의 마지막리별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을 잃고 동생과 헤여지신 크나큰 슬픔과 마음속아픔을 이겨내시며 부대를 거느리시고 북만으로 싸움의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제19과
인민의 새세상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유격근거지를 꾸리는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놓으시였습니다.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데서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인 유격구를 꾸리는것이 선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후 두만강연안에 유격구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유격구를 꾸리자면 유격대가 유리한 지역들을 차지하여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들이 여러곳에서 일제놈들을 쳐부시고 두만강연안의 산악지대들을 차지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민들을 집결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수많은 유격구들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격대는 의거하여 싸울수 있는 기지를 가지게 되였고 인민들은 일제놈들의 악랄한 학살만행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보금자리를 찾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들을 창설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켜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피눈물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인민의 대표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십리평인민혁명정부 위원들을 선거하는 모임에 참가하시여 인민혁명정부 위원으로 추천된 박로인을 지지하는 토론을 해주시였습니다. 한평생 머슴살이를 해오다가 늙고 병들어 지주집에서 쫓겨난 로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던 로인은 그날 저녁 자기가 애지중지 길러온 백마한필을 끌고 인민혁명정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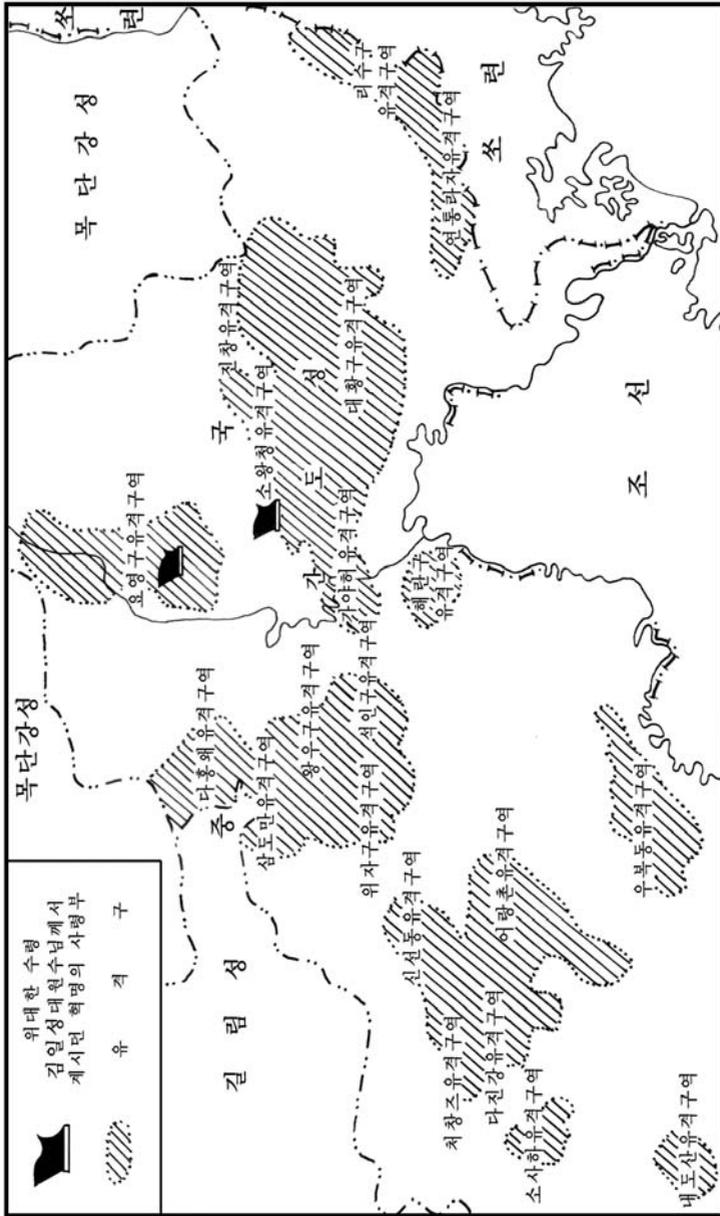
그리고는 《나를 대신해서 이 백마를 **김일성**대장에게 드려주시오. 내 오늘 난생처음 그분의 덕으로 사람대접을 받아봅니다.》라고 절절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장은 그 백마를 끌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지휘부에 와서 말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의아해하시며 《이건 어디서 생긴 말입니까?》라고 물으시였습니다.

회장은 박로인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고 감격을 금치 못하는 로인의 심정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인의 절절한 심정을 헤아려보시고 백마를 받으시였습니다.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정부가 농민들이 대대로 바라고바라던 땅을 주고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

두만강연안 유격구분포도

키며 앓는 사람은 무상으로 치료해주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힘껏 일하며 참답게 살아갈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꾸려주신 유격구는 착취받고 압박받으며 사람값에 못 가던 수많은 인민들의 새세상이였습니다.

인민의 새세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제를 쳐부시는 간고한 싸움속에서도 유격구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농민들의 농사일이 걱정되시여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또다시 십리평에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맞이한 마을인민들의 기쁨은 참으로 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민들이 일하고있는 밭머리로 다가가시였습니다.

농민들은 소도 없이 밭고랑을 째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씨앗을 얻기가 어려웠겠는데 여기에 무엇을 심으렵니까?》하고 물으시였습니다.

농민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에 묻을 씨앗이 없었던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안타까와하는 농민들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시고 가슴아파하시였습니다.

그때 한 늙은 농민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으로 씨앗은 우리자체의 힘으로 구하기로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농민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십리평인민들의 굳센 모습을 보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을에 들어오시여 마을사람

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어떻게 곤난을 뚫고나갈것인가를 의논하시였습니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였습니다.

마을녀성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저녁 한끼라도 따뜻이 대접해드리려고 바삐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밥을 지을 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사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의 배낭속에 있는 쌀을 전부 모으도록 하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서너되밖에 안되였는데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량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쌀과 함께 산나물을 많이 넣고 나물죽을 쑤게 하시였습니다.

이날 저녁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하루밤만이라도 마을에서 주무시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을사람들의 청을 사양하시고 십리평을 떠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떠나신 다음날 저녁이였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달구지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뒤에는 여러마리의 부림소들이 따라오고있었습니다.

달구지들이 마을 한복판에 이르자 한 유격대원이 모여온 마을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종자와 식량을 싣고왔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쓸 소들도 몰고왔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마을사람들은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그들은 유격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씨앗과 부림소들이 적들을 쳐부시고 빼앗은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커서 감격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인민의 새세상이

펼쳐진 유격구들은 혁명투쟁을 더 크게 벌릴수 있는 튼튼한 터전으로 되였습니다.

유격근거지—유격대가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는 기지.

유격구—항일무장투쟁시기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되였던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 유격구는 반일인민유격대가 장악한 지역으로서 적의 통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있었다.

제20과
왕재산으로 가시는 길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일제를 쳐부시는 싸움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넓혀나가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주체22(1933)년 3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넓혀나가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유격대원들을 이끄시고 조국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소왕청유격근거지 마촌을 떠나 량수천자 솔골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숙영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솔골은 두만강기슭의 마을이였는데 강건너편에는 조국땅인 온성군 왕재산에서 뻗어내려온 산줄기가 앞을 막아서있었습니다.

조국땅을 눈앞에 바라보는 대원들의 기쁨은 참으로 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솔골에서 얼마동안 머무르면서 먼저 조국에 들여보내신 선발대를 기다리는 한편 이곳 마을들을 혁명화하기로 하시였습니다.

대원들은 여러 집에 나뉘여 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이곳 인민들의 일손을 자기 집 일처럼 잘 도와주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원들은 주인집을 도와 마당도 쓸고 나무도 해다주었습니다. 산에서 싸리나무를 해다가 주인집 울타리를 고쳐주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농가에 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인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늘 집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시여 집안팎을 말끔히 거두시고 나무를 패주시였으며 두만강에 나가시여 얼음을 까고 물도 길어오군 하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른아침이였습니다.

그날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도끼와 물초롱을 드시고 두만강가로 나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물을 길을 구멍을 내기 위하여 도끼로 강얼음을 까기 시작하시였습니다.

겨울동안 꽁꽁 얼어붙은 강얼음은 잘 까지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힘있게 도끼질을 하시며 얼음을 까내려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얼음을 다 까시였을 때 그만 자루가 빠지면서 도끼가 물속에 미끄러져들어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 긴 장대기를 가지고 강바닥을 훑으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살이 훑어도 도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도와드리던 대원이 주인에게 도끼값을 치르어주면 되지 않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무리 값을 후하게 치르어준다고 해도 자기의 손때묻은 물건을 잃은 주인의 아쉬운 마음이야 어떻게 덜어줄수 있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몇시간동안이나 계속 도끼를 찾으시였습니다.

그러나 도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주인집으로 들어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집 로인에게 도끼값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러자 로인은 펄쩍 뛰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어른께서 새벽마다 자기네를 도와 물을 길어주신것만도 고맙고 황송한 일인데 이 늙은것이 힘이 없어 혁명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도끼값을 받다니 그게 될말인가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로인에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이 고장을 떠나가버리면 내가 대장으로서 혁명군의 규률을 위반하는것으로 되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끝내 도끼값을 넉넉히 치르어주시고 거듭 미안하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도끼값을 물어주신 다음에도 대원들에게 《그 로인에게 참으로 미안하게 되였습니다.》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시였습니다.

두만강기슭에 이런 뜻깊은 이야기를 남기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을 건너 왕재산마루에 오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넓혀나가기 위한 뚜렷한 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제21과
로야령의 눈보라속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과의 피어린 싸움속에서 강해진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개편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고 무장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시기 위하여 북만원정의 길

에 오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북만으로 떠나신것은 주체23(1934)년 10월 하순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눈덮인 로야령을 넘어 북만에 이르시여 여러곳에서 일제놈들을 족치고 중국인무장부대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북만에서 계획하셨던 일을 끝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러 대오를 먼저 떠나보내신 다음 남은 대원들을 데리고 유격구로 향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적들이 뒤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뛰여난 전술로 적들을 족치기도 하시고 따돌리기도 하시면서 대오를 이끄시였습니다.

대오가 천교령가까이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대오는 여기서 뜻하지 않은 커다란 난관을 겪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그만 촉한으로 앓아눕게 되신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높은 열로 하여 이따금씩 정신을 잃군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얼마간이라도 더운 곳에 모셔야 하겠는데 그럴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너무도 안타까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발구를 만들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신 다음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갈길은 멀고 험한데 수백명이나 되는 적들이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정신을 가다듬으시였을 때 대원수님의 곁에는 16명의 대원밖에 없었습니다.

한 대원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매달리며 사령관동지께서 일어

나지 못하시면 조선은 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발구의 앞뒤에서 걸음을 옮기던 대원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에워싸고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씀할 힘이 없어 울지 말라고 타이르지 못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정신을 잃으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시였을 때 발구옆에 16명의 대원들이 모두 쓰러져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발구가까이에 쓰러져있는 한 대원을 흔들어 앉히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노래를 부르자고 하시며 가사를 받아쓰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였습니다.

그러자 쓰러졌던 대원들이 하나, 둘 일어나 노래를 합창하였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도 널리 불리우는 《반일전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인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시였습니다.

대원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행군을 다그쳐 어느 한 목재소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대오는 이곳에서 심부름군으로 일하는 김로인을 만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목재소에 이른지 얼마 안되여 적《토벌대》가 목재소가까이까지 왔다는 정찰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대장도 대원들도 이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나어린 전령병은 너무나 앞이 캄캄하여 울음을 터뜨리고말았습니다.

전령병이 한창 울고있을 때 나무를 안고 부엌에 들어온 김로인은 그에게 왜 우는가고 물었습니다.

대원은 사령관동지께서는 앓고계시고 적들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니 빠질 구멍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로인은 조금 기다리면 목재소주인놈이 말파리를 타고 여기로 오는데 그놈을 리용하면 빠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후 주인놈이 도착하자 중대장은 김로인의 말대로 그놈을 비끄러매고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주인놈은 요구대로 하겠으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주인놈이 유격대가 다른 곳으로 빠졌다고 련락하였기때문에 날이 저물 때까지 《토벌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식사가 끝나자 김로인은 이곳을 빠져나갈 또 하나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목재소주인을 앞세우고 적경비초소를 빠져나가는것이였습니다.

로인은 적들의 초소를 빠져나간 다음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병치료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집도 대주었습니다.

중대장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장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모든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밤이 되자 중대장은 목재소주인놈을 내세워 말파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대오는 다섯채의 말파리에 갈라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맨앞에는 싸움을 잘하는 소대장이 주인놈과 같이 타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세번째 말파리에 타시였습니다.

다리를 지키고있던 보초놈은 말파리소리를 듣고 어둠속에서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주인놈은 유격대원들이 미리 짜준대로 로동자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목재소주인놈을 확인한 적들은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대오는 이렇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빠져나올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산마루에 이르러 대원들은 고마운 로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대원들은 김로인의 말대로 로야령산속에 사는 조로인네 집을 찾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더운 방에 모시게 되였습니다.

주인집 로인과 며느리는 있는 정성을 다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간호해드렸습니다.

주인집의 끝없는 지성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병은 인차 나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로인의 집에서 10여일간 병치료를 받으시고 그곳을 떠나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헤여지기 섭섭해하는 주인집로인의 손을 꼭 잡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살길을 찾아온 이국땅에서까지 해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살아야 하니 조선의 아들들의 죄가 큽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이제 해빛을 보면서 살게 될 날은 꼭 옵니다.》

조국해방의 날을 하루빨리 안아오시기 위하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신채 그 집을 나서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오를 거느리시고 유격구를 향하여 행군을 다그치시였습니다.

개편—조직, 기구, 체계 같은것을 고쳐짜는것.

제22과
북만원정의 길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4(1935)년 3월 요영구회의에서 유격구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이 넓은 지대에로 나가 일제놈들을 더 크게 족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회의후 유격구를 해산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6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2차북만원정을 떠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려운 행군길에서 대원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날이였습니다.

사나운 눈보라를 맞받아 밀림속 생눈길을 헤치시며 부대를 이끌어가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에게 겨울에 신는 가죽신인 《도로기》를 꺼내신으라고 하시였습니다.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도로기》를 꺼내신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기》를 처음 신어보는 한 어린 대원은 신이 발에 붙지 않고 자꾸 벗겨져 걸음을 잘 옮기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어느새 보셨는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의 곁으로 다가오시여 신발을 벗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어린 대원은 한쪽 《도로기》를 벗어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도로기》를 받아드시고 이리저리 만져보시다가 그안에 깐 짚을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짚을 꼭 맞게 잘 깔아야 발이 뜨뜻하고 벗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린 대원은 얼굴을 붉히며 자기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정하게 웃으시며 다른 한쪽마저 벗겨 잘 손질하신 다음 허리를 굽히시고 그 대원의 발에 신겨주시였

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는 발에 맞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이제는 꼭 맞습니다.》

어린 대원은 어버이사랑에 목이 메여 겨우 대답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대원을 보내시고 또 다른 대원들의 신발을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이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의 잘못을 따뜻한 어버이사랑으로 일깨워주시였습니다.

행군이 계속되던 어느날 아침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대를 출발시키고 대원들이 휴식하던 곳을 돌아보시다가 총 한자루를 보시였습니다.

어느 대원이 계속되는 전투와 행군으로 지친 나머지 졸음에서 채 깨여나지 못하여 총을 그냥 두고 떠나간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총을 어깨에 메시고 령길을 내리시였습니다.

부대가 얼마간 내려갔을 때 《도로기》가 발에 잘 붙지 않아 애먹던 어린 대원이 급히 달려올라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그 대원의 팔소매를 잡으시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메신 총이 자기의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어서 대렬을 따라가라고 하시며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어린 대원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총을 돌려달라고 몇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냥 가자고만 하시였습니다.

목적지에 이르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 대원을 사령부

천막으로 부르시였습니다.

그 대원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사령부로 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그를 지켜보시다가 옆에 세워두었던 총을 그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동무가 힘들어하는것 같아서 좀 도와주었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 어서 가지고 가오.》

어린 대원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잘못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치면 되는것이요, 어서 돌아가보오.》라고 하시였습니다.

어린 대원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에 가슴을 들먹일뿐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런 사랑, 이런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온갖 곤난을 이겨내며 북만의 넓은 곳에서 일제놈들을 세차게 족칠수 있었습니다.

도로기－털가죽의 털이 안으로 가게 만든 겨울신의 한가지.

제23과
태워버리신 《민생단》 문서보따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놓으시였습니다.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자면 새 사단을 조직하여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사단을 조직하시기 위하여 마안산으로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마안산에 이르시였을 때 새 사단의 기둥으로 삼으려 하시였던 2련대는 교하쪽으로 이동하고 없

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대신 《민생단》으로 몰린 대원들이 100여명이나 된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시였습니다.

그들마저 식량을 구하러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밀영을 책임지고있던 정치주임에게 물으시였습니다.

《〈민생단〉이 확실하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소?》

정치주임은 그들이 《민생단》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민생단》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민생단》문서가 얼마나 많은지 방 한칸에 가득 차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지체없이 통신원을 보내여 《민생단》으로 몰린 대원들을 데려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민생단》문서보따리를 풀어헤쳐놓고 한장한장 검토하기 시작하시였습니다.

그사이에 《민생단》으로 몰린 대원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오셨다는 련락을 받고 수백리길을 달려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곧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귀틀집으로 가시였습니다.

귀틀집문을 열고 들어서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들을 숙이고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동안 동무들의 고생이 막심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나는 동무들에게 붙어있는 《민생단》혐의문서장들을 뒤져보았다, 그걸 봐서는 어느 한사람도 《민생단》이 아닌 사람이 없다, 나는 문서장만 보고 동무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동무들이 스스로 속심을 툭 털어놓고 얘기해보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너무도 안타까우시여 맨앞에 앉은 청년에게 동무가 《민생단》에 들었다는것이 사실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뜻밖의 대답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다른 대원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시였습니다.

《그럼 리두수동무가 말해보라. 동무가 〈민생단〉에 들었다는것이 사실인가?》

그런데 그 대원도 《민생단》에 든것이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본놈들때문에 집도 고향도 모조리 빼앗긴 동무가 일본놈의 개노릇을 한다는게 사실인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은 눈물만 떨어뜨리며 한마디의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시여 밖으로 나오시였습니다.

얼마후 다시 귀틀집안으로 들어가시려는데 나무뒤에서 한 녀대원이 불쑥 나왔습니다.

《장군님, 저는 〈민생단〉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크게 기쁘게 하였습니다.

녀대원은 자기가 《민생단》으로 몰리게 된 사실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녀대원을 데리고 귀틀집으로 들어가시였습니다.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숙인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 머리를 들라. 나는 동무들의 죄를 따지고 판결을 내리자고 온 사람이 아니다. 백두산에 나가 함께 싸울 전우들을 찾아온 사람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런데 여기 있는 동무들은 모두 나의 전우가 될수 없는 친일역적들이며 반동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을 믿을수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과연 동무들이 그처럼 고생해온것이 일본의 개가 되여 자기의 혈육들과 동지들을 해치기 위해서였는가? 리두수동무, 말해보라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그 대원은 울음을 터뜨리며 《제가, 제가 어떻게… 왜놈의 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왜놈의 개가 아닙니다! 〈민생단〉이 아닙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민생단》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한동안 대원들을 둘러보시다가 《민생단》문서보따리를 가져다 불사를 준비를 해놓으라고 명령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준비가 끝나자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을 오늘 누가 〈민생단〉이고 누가 〈민생단〉이 아니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동무들에게 명백히 선언할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민생단〉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동무들자신이 다 〈민생단〉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기때문이다. 나는 동무들이 한 그 말을 믿는다. 동무들은 이 시각부터 백지상태로 돌아가서 다 새로 출발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민생단》문서보따리에 몸소 불을 지르시였습니다.

문서보따리는 불에 타서 재가루가 되여 날아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대원들은 참고참아오던 눈물을 쏟으며 막 흐느껴울었습니다.

그들은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영원히 받들어나아가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새로 꾸리는 사단의 어엿한 대원으로 받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처럼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으로 꾸리신 새 사단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백두산지구에 나오시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시였습니다.

《민생단》—일제놈들이 1932년 2월에 만들어냈던 반혁명적간첩주구단체.

제24과
마안산아동단원들에게 돌려주신 사랑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 사단을 꾸리기 위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시던 때에 마안산의 한 밀영에서 아동단원들이 나쁜 놈들에 의하여 몹시 고생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뒤로 미루시고 마안산골짜기에 있는 밀영을 찾으시였습니다.

밀영에는 일제놈들에게 부모를 빼앗기고 그 원쑤를 갚기 위해 유격대를 찾아온 수십명의 아동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명대렬에 끼여든 나쁜 놈들은 아동단원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짐이 된다고 하면서 외딴 곳에 두고 잘 돌보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지어 놈들은 나어린 아동단원들을 《민생단》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천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동단원들은 헐벗고 굶주리였으며 여러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밀영에 이르시였을 때였습니다.

어느새 소식을 들었는지 아동단원들이 《장군님!》 하고 환성을 올리며 막 달려나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안아주시려 두팔을 벌리고 마주 걸어가시였습니다.

그런데 환성을 올리며 달려오던 아동단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더는 앞으로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옷차림이 너무 험하다는것을 느꼈던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말이 아니였습니다.

얼굴은 굶주림때문에 퉁퉁 부어있었으며 옷은 찢기고 닳아떨어져서 군데군데 살이 드러나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오셨건만 그들은 자기들의 옷이 너무 험하여 얼른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얘들아, 얼굴을 들어라. 너희들이 헌옷을 입고있는건 너희들의 탓이 아니다. 어서들 이리 오너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두팔을 크게 벌리시면서 아이들앞으로 다가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수십명의 아이들이 대원수님을 에워싸며 엉엉 소리를 내여 울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두팔로 껴안으신채 아동단원들이 사는 집으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집안은 몹시도 스산하였습니다. 차디찬 방에는 앓아누운 아이들이 덮지도 못하고 알몸으로 오돌오돌 떨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뵈옵게 된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자리에 눕혀주신 다음

이마도 짚어보시고 얼굴빛도 살펴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병인가를 물으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민생단》이라는 죄명을 썼기때문에 생긴 마음속의 병이였던것입니다.

방안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령병을 부르시여 자신께서 덮는 모포를 가져오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그것은 단 한장밖에 없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모포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그 모포만은 아이들에게 줄수 없다고 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모포를 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의 모포를 조용히 밀어놓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 그만들 두시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고 추워서 떨고있는데 100장의 모포를 덮고 잔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소. 동무들이 나를 생각하겠거든 먼저 이 애들을 잘 돌보아주는것이 좋겠소.》

그러신 다음 손수 모포를 펴시여 앓아누운 아이들에게 덮어주시고 찬바람이 스며들세라 모포의 깃을 꼭꼭 여며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아이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지 않은 이곳 일군들의 그릇된 행동을 엄하게 비판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둘수 있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추위에 떨고있는 아이들에게 어서 빨리 옷을 해입혀야겠다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밀영에는 한쪼박의 천도, 천을 구해올만 한 돈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품속에서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돈 20원을 꺼내시여 련대정치위원에

게 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20원을 가지고 무송시내에 내려가서 천을 사오시오. 그리고 그 천으로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시오.》

강반석어머님께서 모진 고생속에서 남의 집 바느질과 빨래를 해주시며 한푼두푼 모아두시였다가 싸움의 길로 떠나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주시였던 그 돈은 이렇게 헐벗은 마안산아동단원들을 위하여 쓰이게 되였습니다.

얼마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새 옷을 받아안은 아동단원들은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입히시는 한편 한가지라도 더 도와주시려고 애쓰시였습니다.

아이들의 밀영도 잘 꾸려주게 하고 식량도 넉넉히 마련해주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 마안산을 떠나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마안산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동단원들이 달려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모여섰던 대원들은 그들을 타이르느라고 애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함께 있는것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기어이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들모두를 데리고 떠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대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너무도 멀고 험한 길이기때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아동단원들을 혁명가의 가장 훌륭한 학교인 혁명투쟁속에서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는 아이들을 데리시고 곧 마안산을 떠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넓은 품에 안긴 아동단원들은 어려운 행군과 끊임없는 전투속에서 어엿한 혁명가로 자라났습니다.

아동단—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무어주시고 지도하신 혁명적인 어린이들의 조직.

밀영—유격전을 하기 위하여 산림지대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해서 비밀리에 지은 집.

제25과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 사단을 편성하신 후 동강밀영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련이어 백두산일대의 적들을 짓눌러놓기 위한 전투들을 조직지휘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시기 무송현성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시여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시면서 《항일의 녀성영웅》, 《백두의 녀장군》으로 이름을 떨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무송현성전투를 조직지휘하신 것은 주체25(1936)년 8월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새벽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여러 중국인 반일부대들에 무송현성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성안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성안으로 퇴각한 적들은 무력을 총동원하여 곳곳에서 저항해나섰습니다.

전투가 오랜 시간 계속될것을 예견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김정숙어머님을 부르시여 녀대원들과 함께 잘루목을 차지하고 아침식사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주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곧 7명의 녀대원들과

함께 잘루목에 도착하여 경계조치를 취하신 다음 아침식사준비를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송현성을 동쪽과 북쪽에서 공격하던 반일부대들이 적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제멋대로 퇴각하여 전투는 예상외로 치렬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발악적으로 저항하는 적들을 성밖으로 끌어내여 소멸할것을 결심하시고 부대들을 적을 족치기 유리한 곳으로 철수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유인전술에 걸려든 적들은 성문을 열고 쓸어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개 소대의 적들이 아군이 철수하는 통로인 잘루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잘루목을 차지한다면 부대는 적의 포위에 들게 되고 사령부가 위험에 처할수 있었습니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이 아침식사준비를 하는 앞계선에 이르자 철수하는 혁명군부대의 앞길을 막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이 순간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한몸바쳐 싸우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녀대원들에게 《우리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전을 벌립시다.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사수합시다.》라고 웨치시며 사격을 시작하려는 적기관총수놈을 싸창으로 단방에 꺼꾸러뜨리시였습니다.

녀대원들은 일제히 명중탄을 퍼부었습니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적들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다가 소리를 지르며 녀대원들에게로 돌격해왔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적탄이 비오듯 날아오는 속에서도 량손에 싸창을 틀어쥐시고 기관총사격을 하듯이 련속 불줄기를 내뿜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고 힘껏 웨치시였습니다.

나무뒤에 숨어서 졸병들을 돌격에로 내몰던 적 장교놈이 김정숙어머님의 싸창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적들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조선인민혁명군의 한개 중대가 달려와 녀대원들과 함께 적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였습니다.

그사이에 주력부대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지휘밑에 무사히 철수하여 매복진을 펐고 뒤따라온 적의 악질부대를 전멸시켰습니다.

무송현성전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한번 떨치고 승리로 끝났습니다.

무송현성전투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근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커다란 업적을 이룩해나가시였습니다.

조국광복회—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는 혁명조직.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25(1936)년 5월 5일 무송현 동강밀영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였다.

제26과
만강에서의 연극공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내놓으신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시면서 참된 조선녀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을 만들어 인민들을 교양할것을 계획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미전부터 구상하고계시던 연극내용을 더욱 무르익히시고 전투와 행군의 짬시간마다 대본을

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5(1936)년 8월 만강에 이르시여서는 창작을 다그쳐 혁명연극 《피바다》의 대본을 완성하시였습니다.

연극대본을 받은 《대통령감》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원은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것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연습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을남이 역을 맡은 만강의 어린이는 자기 역을 제대로 하였는데 어른들의 연기가 문제였습니다.

여느때는 눈썰미가 빠르고 감정도 풍부한 갑순이 역을 맡은 녀대원도 정작 연극을 한다니까 울어야 할 대목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대원들의 연습을 친히 지도해주시였습니다.

먼저 갑순이의 역을 맡은 녀대원에게 이 연극은 바로 동무같은 사람들이 겪은 생활을 엮은것이다, 왜놈들이 쏴죽인 을남이는 동무의 친동생이다, 생각해보라, 방금전까지 누나, 누나 하던 동생이 무참히 쓰러졌는데 왜 누나의 가슴에서 원한의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토벌대장》의 역을 맡은 중대장에게는 《토벌대장》역을 잘하는것이 동무의 전투과업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지도를 받은 대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연습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자기가 맡은 역들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연극이 완성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마을에 무대를 만들고 혁명연극 《피바다》의 첫 공연을 진행하게 하시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무대우에 자기들이 겪어온 생활과 꼭같은 생활이 펼쳐지자 저도모르게 연극에 끌려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갑순이와

함께 울기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한 로인은 얼마나 흥분했던지 자기가 연극을 본다는것도 잊고 무대에 뛰여올라가 을남이를 쏘아죽인 왜놈《토벌대장》역을 하는 중대장의 이마를 긴 담배대로 후려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마을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등잔불밑에서 자기들이 본 연극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흥분에 들떠있는 마을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생각하시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공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허락여촌장이 말한것처럼 아마 초저녁부터 불을 끄고 어둠속에서 잠을 청하고있거나 꿈나라로 갔을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도 만강의 집들에서는 등잔불이 타오르고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을에 등불을 가져다준셈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마을에 100마대의 쌀을 메다준들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흥분할수 있겠는가.)

참으로 만강에서의 연극공연은 두메산골 까막눈이던 젊은이와 늙은이들을 깨우쳐주고 교양하여 항일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하는 혁명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연극을 본 수많은 청년들이 무대에 뛰여올라와 조선인민혁명군에 받아줄것을 청원하였으며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이곳 인민들은 그후 유격대를 돕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제27과
몸소 소백수골에 나오시여

국내의 백두산지구에 혁명의 사령부를 꾸리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구상이시였습니다.

이러한 구상밑에 백두산지구에로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5(1936)년 9월 국내 소백수골로 향하

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력부대의 기본지휘성원들과 경위대 그리고 일부 전투중대를 거느리시고 이미 백두산지구에 파견하시였던 지휘성원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행군을 다그치시였습니다.

행군대오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도 계시였습니다.

압록강가에 이르러 대오를 휴식시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드디여 강을 건느시여 그립던 조국땅에 들어서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락엽이 끊임없이 떠내려오는 소백수물줄기를 따라 소백수골안으로 올라가시였습니다.

어느덧 하루해가 기울어져 저녁무렵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오를수록 깊어만지던 골짜기가 갑자기 넓어지고 무성하던 숲속이 환해졌습니다.

이어 새초가 깔린 평퍼짐한 공지가 나졌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인 공지는 한결 아늑한감을 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용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백두산지구에 파견되였던 한 지휘관의 설명을 들으시며 주변의 지형을 세심히 살펴보시였습니다.

소백수골에서 서북쪽으로 40리가량 되는 곳에는 백두산이 솟아있었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오늘 우리들은 조국땅에서 숙영하게 되오,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인 백두산은 여기에서 지척에 있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립던 조국땅에 나왔다는것을 알게 된 대원들은 모두 환성을 올리면서 서로 얼싸안고 돌아갔습니다.

얼마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대원들은 장수봉(오늘의 **정일**봉) 맞은편 산언저리와 소백수가에 숙영천막을 쳤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밤 대원들에게 백두산을 타고앉아 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밀영을 건설할 자리를 돌아보시고 지휘관들의 회의를 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소백수골에 사령부밀영을 꾸리고 그를 중심으로 백두산지구의 여러곳에 밀영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회의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구체적인 지도밑에 백두산밀영건설이 힘있게 진행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백두산밀영을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가장 훌륭히 꾸리도록 대원들을 이끌어주시면서 밀영건설에 쓸 나무들을 한대한대 정성을 다해 다듬어 쌓아올리시였습니다.

며칠사이에 소백수골에는 사령부귀틀집을 비롯한 새 귀틀집들이 일떠섰습니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본거지가 마련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의 백두산 〈주택〉들에 노루발쪽이 문손잡이로 달리게 된 때로부터, 다시말하여 소백수골에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꾸려지게 된 때로부터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본거지로, 중심적령도거점으로 되였다.》

백두산밀영이 꾸려지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밀영의 나무들에 《백두산에 장수별 떴다 백두산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를 비롯한 깊은 뜻이 담긴 구호들을 쓰시였습니다.

백두산밀영이 건설된 다음 사자봉밀영, 곰산밀영, 선오산밀영, 간백산밀영 등 여러 밀영들이 꾸려졌습니다.

백두산밀영이 꾸려진 때로부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 여러가지 일들을 여기에서 구상하시고 설계하시고 령도해나가시였습니다.

제28과
《소를 임자에게 돌려보냅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에 나오시여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자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더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럴수록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도록 대원들을 교양하시였습니다.

주체25(1936)년 10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부대를 거느리시고 장백현 지양개치기에 머물러계시던 때였습니다.

어느날 두 유격대원이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인민들이 주는 소 한마리를 끌고 부대로 왔습니다.

그날 약수동쪽으로 나갔던 그들은 가을걷이를 끝낸 남새밭에서 시래기를 줏고있었습니다.

때마침 장보러 갔던 약수동농민들이 유격대원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유격대에 식량이 떨어졌다는것을 알아차리고 마을로 내려가자고 대원들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낟알을 구해서 보내려는 농민들의 마음은 끝없이 고마왔지만 대원들은 마을로 갈수 없었습니다.

인민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어길수 없었던것입니다.

그러자 마을농민들은 무엇인가 의논하다가 끌고가던 황소의 고삐를 두 대원에게 넘겨주는것이였습니다.

《이것은 약수동인민들의 지성이니 제발 받아주시우 …》

마을농민들은 진정으로 받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대원들은 농민들의 청에 못이겨 하는수없이 소를 끌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밀영은 갑자기 명절날처럼 흥성거렸습니다.

끼니때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소금국만을 올리던 작식대원들은 기쁨에 넘쳐 칼을 갈고 물을 끓이면서 소잡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런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식량을 구하러 갔던 대원들이 소를 끌고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소가 있는 곳으로 나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알뜰하게 만든 코뚜레와 붉은 천을 모양있게 감은 소굴레, 누런 퉁방울과 엽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아무리 약수동인민들의 지성이라 한들 그것을 받아들일수는 없으시였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를 임자에게 돌려보냅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우면서도 엄하게 들려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둘러선 대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찌할바를 몰라했습니다.

잠시나마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던것입니다.

소를 끌고왔던 두 대원은 더는 그대로 서있을수 없어 목메인 소리로 말씀올렸습니다.

《사령관동지! 저희들이 사령관동지의 뜻을 어기였습니다. …저희들을 처벌하여주십시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타이르시

였습니다.

《소를 돌려보내자는것은 동무들의 잘못을 책망하자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인민에 대한 사랑—이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를 곧 임자에게 돌려주고 식사는 주어온 시래기로 준비하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식사준비가 끝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시래기국을 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언제나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실 때도 우등불가에서 쪽잠에 드실 때도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였습니다.

하기에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면서 유격대원들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도와나섰습니다.

제29과
보천보의 불길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서강회의에서 일제놈들의 발굽밑에 신음하는 조국인민들에게 조선은 반드시 해방된다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대부대로 국내에 나가 일제놈들을 족쳐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달후인 주체26(1937)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제히 새 여름군복을 갈아입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보천보를 향하여 떠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부대를 이끄시고 조국산천이 한눈에 바

라보이는 제비등판에 오르신것은 6월 3일 새벽이였습니다.

《조국이다!》

눈길이 모자라게 아득히 펼쳐진 조국산천을 바라보며 대원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쁨에 겨워 어쩔줄 모르는 대원들을 둘러보시며 오늘은 비록 저 삼천리금수강산이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원쑤놈들을 쳐물리치고 조국을 다시 찾고야말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원들은 기어이 조국을 찾고야말 불같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지휘밑에 부대는 일제놈들이 물샐틈없이 지키고있는 압록강을 감쪽같이 건너 조국땅 곤장덕에 올랐습니다.

조국땅에 들어선 감격을 안고 뜬눈으로 밤을 새운 대원들은 이른아침 안개속에 그림같이 안겨오는 조국산천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볼수록 아름다운 조국산천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조국을 하루빨리 되찾을 결심을 더 굳게 다지시며 보천보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천보에 정찰을 보내시여 시내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지휘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투임무를 주시였으며 포고, 삐라도 준비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날이 어두워지자 부대를 이끄시고 곤장덕을 내리시여 보천보전투를 몸소 지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거리입구에 있는 황철나무아래에 지휘처를 정하시였습니다.

지휘처에서 주요공격목표인 경찰관주재소까지의 거리는 100m

안팎이였습니다.

지휘관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지휘처를 멀리 떨어진 곳에 정할것을 말씀드렸으나 대원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였습니다.

대오는 각기 조별로 나뉘여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6월 4일 밤 10시,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권총을 높이 들고 방아쇠를 당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울리신 총소리를 신호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사방에서 원쑤놈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웠습니다.

먼저 이 고장 경찰들의 소굴인 경찰관주재소에 호된 타격을 안기였습니다. 혁명군의 기관총이 주재소창문을 향해 사정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날 적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여있는 산림보호구에도 드센 공격을 들이대였습니다.

순식간에 온 거리가 발칵 뒤집히였습니다.

전령병들이 련이어 지휘처로 달려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전투정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이 왔다갈 때마다 인민들을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얼마후에는 여기저기서 불길이 솟구쳐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우편국, 소방회관을 비롯한 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던 곳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길에 거리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드센 사격에 어찌나 바빴는지 어떤 경찰놈은 돼지우리에 들어가 검불속에 머리를 틀어박고 벌벌 떨고있었습니다.

농사시험장에 있던 적들은 머리를 이불안에 처박고 죽은듯이 있다가 나어린 녀대원의 총창앞에 모두 손을 쳐들고 나왔습니다.

정치공작원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쓰신 《포고》와

보천보전투략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거리에 내붙이고 삐라와 격문을 뿌리면서 힘있는 선동사업을 벌렸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

《우리 군대가 왔다!》

인민들은 모두 떨쳐나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보천보거리 한복판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모여든 인민들앞에서 모자를 벗어쥐고 팔을 높이 들어 흔드시면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여러분! 저 불길을 보십시오. 거세차게 타번지는 저 불길은 놈들의 최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이 있는 한 조국은 반드시 해방된다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 혁명군을 도와 싸워나가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연설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잃었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이윽고 부대의 철수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습니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잠시라도 더 모시고싶어하면서 대원들의 손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대원들도 인민들의 손을 쓸어만지며 놓을줄 몰랐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국이여! 보천보여! 잘 있으라. 이제 너를 해방하고 사랑하는 너의 품에 영원히 안길 날이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대원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며 조국땅 보천보를 떠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몸소 작전하시고 이끄신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억눌려사는 인민들의 가슴속에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맞서싸우면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제30과
간삼봉전투

보천보에서 커다란 참패를 당한 일제놈들은 악에 받쳐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에 더욱 미쳐날뛰였습니다.

놈들은 중국동북지방에 있는 군대도 모자라 함흥에 있던 악질적인 일제침략군 74련대까지 동원하였습니다.

놈들의 수는 약 2 000명정도 되였습니다.

함흥을 떠나 압록강을 건는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적들의 추격을 미리 예견하시고 놈들을 간삼봉에서 족치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간삼봉에 이르시자 산에 올라 지형을 살펴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부대지휘관들의 모임을 여시고 전투임무와 전투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저녁에 지휘관들이 모여 전투방안을 토의하였는데 거기서 내가 강조한것은 적의 정규전법에 말려들지 말고 유격전법을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유격전법을 주동적으로 쓰기 위하여 유격대가 산릉선들을 차지하고 적들이 골짜기에 몰리게 유인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유격대가 주의를 적게 돌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부대들의 많은 력량을 배치하고 전투과정에 수림을 리용하여 좌우로 빨리 움직이면서 적을 족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투조직을 면밀히 하신 다음 부대들을 배치하시였습니다.

1937년 6월 30일 아침 드디여 적들의 공격이 시작되였습니다.

짙은 안개를 리용하여 놈들은 인민혁명군 한 부대의 보초소로 밀려들었습니다.

보초소가 위험에 처하자 부대의 지휘관이 한개 중대를 이끌고 적들을 맞받아나갔으나 그만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경위중대를 보내여 그 중대를 구원하게 하시였습니다.

두 중대는 놈들을 안팎에서 벼락같이 족쳐버리고 포위망을 빠

져나왔습니다.

사태를 유리하게 돌려세운 조선인민혁명군은 적들을 골안에 몰아넣고 하루종일 쉴새없이 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아리랑》노래까지 부르며 원쑤놈들을 족치고 또 족치였습니다.

가렬한 전투속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진맥진한 적들을 앞뒤에서 족쳐 완전히 소멸하기 위하여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소부대와 식량공작조에 련락을 보내여 적들의 뒤통수를 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놈들은 앞뒤에서 얻어맞아 더는 헤여날수 없게 되였습니다.

부대장놈은 날이 어두워지자 겨우 살아남은 200명가량밖에 안되는 놈들을 이끌고 달아나고말았습니다.

전투가 있은 다음 일제놈들은 제놈들의 시체가 너무 많아 시체에서 대가리만 잘라 마대와 나무상자에 담아 날라가고 몸뚱이는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놈들의 대가리를 나르는데 동원된 농민들은 너무도 통쾌하여 시치미를 떼고 일제놈들에게 《나리, 달구지에 싣고가는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놈들은 능청스럽게 《호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호박농사가 대풍이군요. 좋은 국거리니 많이들 자시우.》하고 골려주었습니다.

간삼봉전투는 보천보전투의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제의 《무적황군》의 신화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습니다.

경위중대—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호위를 기본사명으로 한 중대.

제31과
소년중대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26(1937)년 부대를 거느리시고 백두산지구에 나오시여 혁명투쟁을 힘차게 벌리고계실 때였습니다.

부대에는 매일과 같이 청년들과 소년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여름 어느날에는 20명이나 되는 소년들이 한 지휘관을 찾아와 입대시켜달라고 조르다가 나중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몸소 그들을 만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나이는 몇살이고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 어느 동네에서 사는가를 물어보시였습니다.

소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씩씩하게 대답하면서 어떻게 하나 유격대에 입대하기 위해 행동도 어른같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대견하게 여기시면서도 한다하는 청년들도 힘들어하는 유격대생활을 꽤 해낼수 있겠는가 걱정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소년들은 자기들도 어른들과 같이 눈우에서 잘수도 있고 일제놈들과 싸울수도 있으며 배고픔도 참을수 있다고 하면서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그냥 졸라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들로 소년중대를 조직하고 그들모두를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년들에게 유격대에 들어오고싶으면 오늘 밤중으로 맹세문을 다 써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들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그들은 신바람이 나서 저마다 자기들의 결의를 담아 맹세문을 썼습니다.

글을 몰라서 다른 동무에게 써달랜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세문에 담긴 결심들은 훌륭하였습니다.

맹세문을 받아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두 잘 썼다고 칭찬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마안산에서 데리고온 아동단원들과 여러곳에서 입대하기 위하여 찾아온 아이들로 소년중대를 조직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중대 지휘관들도 임명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년중대원들에게 군복을 만들어 입히고 총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소년중대를 조직하신 후 소년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년중대원들을 훌륭한 싸움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안전한 곳에 훈련장소를 정해주시고 바쁘신 속에서도 자주 훈련장에 오시여 친히 동작을 해보이시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년중대원들이 훈련을 잘하도록 하시는 한편 그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행군할 때에는 늘 소년중대원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물살이 센 강을 건늘 때에는 어린 소년중대원들을 하나하나 업

어 건네주군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산이나 들을 행군할 때에는 앞에 나무가 있으니 주의하여라, 웅뎅이가 있으니 건너뛰여라라고 하시며 일일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특히 소년중대원들이 배고파할세라 걱정하시며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대에 식량이 떨어져 굶을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소년중대원들만은 굶지 않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때면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돌아보시며 자신께 차례진 죽마저 소년중대원들에게 다 덜어주군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한 녀대원이 대원수님께 사령관동지께서 정 그러시면 자기들도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전희동무, 너무 걱정하지 마오. 좀 굶는다고 해서 큰 변이 나겠소. 그러나 소년중대원들은 다르오. 아직 단련이 부족해서 무척 힘들어한단 말이요. 돌을 삼켜도 삭일 나이들인데 죽만 먹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소. 이런 때에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죽그릇을 들고 소년중대원들이 식사하는 곳으로 가시여 자신의 죽을 그들에게 덜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년중대원들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시였으며 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짬만 있으면 소년중대에 가시여 소년들에게 우리 글을 배워주시고 우리 나라가 왜 망하게 되였는가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싸운 애국자들에 대하여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시며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어느날 숙영지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년중대원들이 신발을 벗고 자는것을 보시게 되였습니다.

중대의 한 지휘관이 어린 대원들을 편안하게 재우고싶어 그만 규률을 어긴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지휘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런 얇은 인정으로는 소년들을 투사로 키워내지 못한다. 만일 이 순간에라도 적들이 달려든다면 신발을 벗고 자는 저 소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발을 상할수도 있고 얼굴수도 있다. 저 소년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긴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부모나 친형, 친누이의 심정으로 저 어린것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당장은 가슴이 아프고 인정에 그늘이 지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소년들을 원칙적으로 키워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양과 보살피심속에서 소년중대원들은 실지 전투에도 참가하며 반년사이에 몰라보게 자라나 구대원들 못지 않는 전투원으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년들이 훌륭한 전투원으로 자라나자 소년중대를 해산하고 그들을 부대에 배치하시였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으며 대원수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습니다.

제32과
두장의 협박장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천보전투가 있은 그해 겨울 마당거우밀영에서 집중군정학습을 조직진행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더욱 강화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주체27(1938)년 봄에 압록강연안으로 나오시여 적들을 크게 족치시였습니다.

림강현 6도구전투도 그때에 있은 전투중의 하나입니다.

6도구는 일제놈들의 큰 부대가 둥지를 틀고있는 곳이였습니다.

적들은 여기에 많은 군대를 끌어다놓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쳐보려고 매일같이 날뛰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6도구의 적들을 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투에 앞서 적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한 정찰을 조직하시고 적들을 혼란시키는 전술을 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놈들에게 먼저 협박장을 보내시였습니다.

협박장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6도구로 쳐들어간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보내신 협박장을 받은 적들은 어쩔바를 몰라하였습니다. 적들은 다른 곳에 있는 놈들까지 부랴부랴 끌어다가 력량을 더 보충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쳐들어간다고 하신 날자에 6도구를 치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유격대가 쳐들어오는줄 알고 긴장해있던 놈들은 웬일인지 몰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 쳐들어간다는 두번째 협박장을 보내시였습니다.

적들은 또다시 며칠간 밤잠을 자지 못하고 들볶아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6도구를 치지 않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놈들은 완전히 맥을 놓고말았습니다.

유격대가 쳐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곳에서 왔던 적들도 뿔뿔이 헤쳐져 제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일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되여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적들이 맥을 놓고있을 때 갑자기 들이칠것을 계획하셨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6도구의 적들을 치기 위한 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출발명령을 받은 부대가 6도구 뒤산에 다달은것은 해가 방금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날 밤따라 사방은 먹물을 뿌려놓은것처럼 캄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둠을 타서 6도구의 적들을 단숨에 들이칠것을 계획하시고 부대에 전투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토성을 넘은 유격대원들은 성문을 지키는 보초놈을 해제끼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뒤이어 전 부대가 일시에 성안으로 돌격해들어갔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적들의 병영을 단숨에 점령하였습니다.

포대안에서 총을 쏘아대며 맞서나서던 놈들도 유격대가 포대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해나서자 총을 던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유격대원들은 눈깜빡할 사이에 6도구에 둥지를 틀고있던 적들을 거의다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많은 무기와 피복, 식량도 빼앗았습니다.

전투의 성과는 참으로 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대를 이끄시고 6도구에서 빠져나온 다음 뒤따르는 적들에게 또다시 무리죽음을 안기시였습니다.

참으로 6도구전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뛰여난 전법과 지략으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통쾌한 전투였습니다.

제33과
한홉의 미시가루

1938년에 우리 혁명은 또다시 어려운 난관을 겪게 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거듭되는 타격을 받은 일제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혁명군을 없애보려고 날뛰였습니다. 또한 혁명조직들을 마구 파괴하고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학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난관을 이겨내고 조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주체27(1938)년 11월 남패자에서 회의를 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국경지대에 나가 적들을 끊임없이 족쳐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의를 끝마치신 다음 곧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국경지대에로의 행군길에 오르시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난의 행군이였습니다.

행군은 첫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일제놈들은 수십만의 군대에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포위해나섰습니다.

특히 놈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공격하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투를 하면서 행군해야 하였는데 하루에 20번이상 전투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해따라 눈이 많이 내리고 몹시 추웠습니다.

대원들이 입고있는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모진 추위속에서 손발은 얼어터졌습니다.

게다가 식량까지 떨어져 대원들은 눈을 녹여먹으며 행군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려운 행군의 나날 대원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깊은 생눈길을 헤치시며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대렬의 앞뒤로 오가시면서 대원들을 돌보시였습니다.

어린 대원들이 힘들어할 때면 그들의 손목을 잡고 키를 넘는 생눈길을 헤쳐나가시였습니다.

쉴참이면 대원들의 젖은 신발을 우등불에 말리워주시고 꿰진 신발도 기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 차례지는 강냉이 몇알마저 드시지 않고 모아두셨다가 허기진 대원들의 손에 쥐여주군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대원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며칠째 굶으며 행군하던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전령병들은 배낭에 소중히 보관했던 미시가루를 꺼내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드리였습니다. 그 미시가루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행군도중 주력부대와 갈라지실 때 주신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전령병들을 둘러보시다가 나이가 제일 어린 전령병에게 그것을 주시였습니다.

미시가루를 받아든 그는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전령병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

면서 어서 들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전령병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홉의 미시가루는 다시 배낭속에 들어가게 되였습니다.

부대는 행군을 계속하였습니다.

앞뒤로 달려드는 적들을 때려눕히기도 하고 감쪽같이 속여넘기기도 하면서 힘겨운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부대는 날이 저물어 숙영하게 되였습니다.

전령병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미시가루를 대접하려고 다음끼니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대원수님앞에 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전령병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다가 《동무들은 몇끼를 굶었습니까?》라고 물으시였습니다.

전령병들은 먼저 먹었다고 대답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니 나 혼자만 먹으란 말이지… 더는 없습니까?》라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전령병들은 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령병들에게 배낭을 가져오게 하시고 배낭안을 살펴보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얼마간의 미시가루가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배낭속에 있는 미시가루를 꺼내시여 종이우에 쏟아놓으시였습니다.

미시가루는 모두 한홉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령병들에게 어서 미시가루를 중심으로 둘러앉으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전령병들은 얼른 다가앉지 못하였습니다.

그 미시가루를 다 없애버리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다음끼니를 보장할수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저하는 전령병들의 마음을 헤아리

시고 그들의 손목을 끌어당겨 나앉게 하시였습니다.

전령병들은 할수없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대로 미시가루를 가운데 놓고 빙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을 한말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어서 받으라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종이숟가락을 만드시여 미시가루를 나누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몫은 남기지 않으시고 전령병들에게만 다 나누어주시였습니다.

전령병들은 자기들에게 차례진 몫을 덜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더는 어쩔수 없으시여 자신의 몫도 조금 남기고 그것을 다시 전령병들에게 나누어주시였습니다.

전령병들은 눈물을 머금으며 미시가루를 물에 탔습니다.

그제서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도 미시가루를 물에 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나누어주신 한홉의 미시가루—그것은 대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는 귀중한 혁명의 량식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런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았기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처럼 어려운 100여일간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낼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을 마치신 후 곧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습니다.

제34과
청봉밀영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어느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

으로부터 녀대원들과 부상자들을 데리고 장백현의 청봉밀영에 가서 돌볼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님께서는 주력부대와 헤여져 청봉밀영으로 가게 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청봉밀영에 오신 첫날부터 밀영을 알뜰히 꾸리고 부상자들을 극진히 돌보아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남패자회의에서 하신 연설내용과 나라안팎의 정세에 대하여 해설해주시였습니다.

얼마후부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대원들이 학습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학습은 주로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되였습니다.

토론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중요한 과업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지도밑에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밀영안에 혁명적규률이 점차 강화되였습니다.

그러자 밀영책임자였던 엄가는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그는 혁명을 하기 싫어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이놈은 김정숙어머님을 비롯한 여러 대원들을 여러모로 못살게 굴면서 내리누르려고 하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엄가놈의 반혁명적책동을 제때에 가려보시고 견결한 투쟁을 벌리시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밀영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남패자회의에서 하신 연설내용을 가지고 학습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가장 옳게 해설하는 토론을 하시였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토론하였습니다.

토론뒤끝에 엄가놈이 일어났습니다.

이놈은 대원들의 토론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면서 제 속심을 드러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놈은 올해처럼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몹시 추운데다가 일제놈들의 《토벌》이 심할 때에는 적들과 맞서싸우지 말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적들의 《토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적과 싸우며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시비하려고 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그놈의 속심을 엄하게 비판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불리한 정세요 뭐요 하면서 적과 싸우지 말고 국경일대에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한 말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엄가놈은 제놈의 그릇된 사상이 드러나게 되자 김정숙어머님을 비롯한 여러 대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어느날 엄가놈의 책동으로 하여 몇끼를 굶은 한 나어린 신입대원이 감자밭에 나가 감자 몇알을 얻어서 구워먹고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엄가놈은 그가 도망치려고 했다고 하면서 잡아다 묶어놓고 마구 때리였습니다.

왜 도망치려고 했는가, 도망치려고 한것을 보면 간첩이 틀림없는데 적들에게서 어떤 임무를 받았는가고 따지고들었습니다.

나어린 대원은 고문이 무서워 적에게서 《독약》을 받았다고 하면서 치분을 내놓았습니다.

엄가놈은 《독약》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김정숙어머님과 일부 대원들에게 주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계속 고문을 들이댔습니다.

나어린 대원은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죽일것 같아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엄가놈은 김정숙어머님과 일부 대원들을 잡아가두

고 간첩으로 몰면서 악착하게 고문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함께 갇혀있는 대원들에게 엄가놈이 아무리 발악해도 우리는 오직 경애하는 대원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하며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엄가놈의 정체를 발가놓으며 더욱 견결히 맞서싸우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엄가놈에게 단호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다. 너는 누구냐. 너는 혁명의 원쑤다. 혁명은 네놈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똑똑히 기억하라. 너는 혁명앞에 지은 죄로 하여 처단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에 겁을 먹은 엄가놈은 하루빨리 《증거문건》을 만들고 해치기 위하여 어머님과 대원들에 대한 고문을 더욱 악착스럽게 들이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사령부통신원을 청봉밀영에 보내주시였습니다. 사령부통신원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설명절을 맞으며 보내시는 쌀과 고기 등을 한짐 지고왔습니다.

그런데 밀영에서는 반가와할 대신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통신원은 김정숙어머님을 비롯한 녀대원들이 손을 묶이우고 온몸에는 상처가 나있는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곧 그를 만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엄가놈의 반혁명적책동을 알려주시면서 빨리 이 사실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보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사령부통신원이 온것을 때늦게 알게 된 엄가놈은 그를 보자 제법 제편에서 대오안에 들어왔던 간첩을 잡았다고 지껄여댔습니다.

엄가놈의 반혁명적책동을 가려보지 못하고 그놈을 따르던 학습

강사도 통신원에게 김정숙어머님과 여러 대원들을 간첩으로 꾸며낸 편지와 《독약》봉지를 주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령부통신원은 곧 청봉밀영을 떠났습니다.

사령부에 도착한 그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모든것을 사실대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격분해하시며 친히 《독약》을 검사해보시고 그것이 치분이라는것을 확인하시자 한 정치일군을 청봉밀영에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무래도 청봉밀영에서 일이 잘못되고있는것 같습니다. 동무가 빨리 가서 사건을 수습하되 도착하는 즉시로 우선 녀대원들을 풀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들을 데려오는것이 좋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정치일군은 지체없이 청봉밀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엄가놈의 반혁명적책동은 중지되고 어머님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사령부로 돌아오시였습니다.

사령부로 돌아오신 어머님께서는 주력부대와 함께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시여 주체28(1939)년 봄 북대정자에 이르시였습니다.

북대정자에서는 엄가놈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엄가놈의 반혁명적죄행을 발가놓으시였습니다.

엄가놈의 반혁명적죄행을 알게 된 대원들은 하나와 같이 치를 떨면서 격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엄가놈은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되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시였으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날카롭게 투쟁하시였습니다.

제35과
또다시 조국에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대정자회의에서 또다시 조국으로 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의가 있은 뒤 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였습니다.

부대는 주체28(1939)년 5월 18일 아침 5호물동으로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긴 대원들은 끝없는 기쁨에 휩싸여 나무를 그러안고 빙빙 돌기도 하고 흙을 움켜쥐고 볼에 비비기도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기슭의 여기저기에 활짝 피여난 진달래를 보시며 천천히 걸으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진달래!》 하고 환성을 올리시며 그것을 품에 그러안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소담하게 피여난 진달래꽃을 꺾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드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꽃을 받아드시고 그윽한 향기를 맡으시다가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선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윽고 대원들을 둘러보시며 일제의 발굽아래 봄이 와도 봄같지 않은 이 조국땅을 해방하고 인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얼마후 다시 행군을 진행한 부대는 이날 밤 청봉에서 숙영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지휘관들을 부르시여 나무에 구호를

쓸데 대하여 이르시고 구호의 내용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밋밋하게 자란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구호를 쓰시였습니다.

잠간사이에 인민들을 조국해방의 길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글발들이 새겨졌습니다. 구호나무들을 바라보는 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깊은 감동의 빛이 어려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원들은 우등불가에서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모니카, 피리소리도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도 녀대원들과 함께 우등불가에서 노래를 부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날이 밝자 대오를 거느리시고 또다시 행군길에 오르시였습니다.

부대는 이곳을 떠나 건창과 베개봉에서 각각 하루밤씩 묵고 삼지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휴식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삼지연의 맑은 물을 정히 떠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먼저 올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물을 드시고나시여 아름다운 호수를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삼지연은 경치도 좋고 물맛도 좋습니다. 이 물을 량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새겨들으며 모두가 삼지연의 물을 달게 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휴식을 끝낸 부대를 이끄시고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하시였습니다.

한달음에 천리를 가는 전술로 단숨에 100리 가까운 길을 걸어 무포에 닿은 부대는 이곳에서 하루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무포를 떠난 부대는 대홍단벌에 이르러 신사동과 신개

척으로 나뉘여 진출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한 부대를 거느리시고 신사동에 친히 나가시여 그곳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시였습니다.

신사동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벌목로동자들이 들어있는 귀틀집을 찾으시였습니다.

방안에는 마침 많은 로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분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이 내여드리는 자리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그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알아보시였습니다.

들을수록 가슴아픈 이야기들뿐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번에 조선인민혁명군은 또다시 강도 일제를 족치고 국내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진군하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얼마후에야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된 로동자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윽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는 반가운 소식이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잠간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뵈오려고 귀틀집으로 모여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하시던 이야기를 잠시 끊으시고 마을사람들을 맞이하시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아 무릎우에 앉히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은 절대로 일제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기어이 침략자 일제를 내쫓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은 로동자들과 마을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처럼 꿈속에서도 그리던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맞이한 마을사람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행복한 한때를 마음껏 즐기였습니다.

자정이 넘었을무렵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오를 이끄시고 대홍단벌로 향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5월 23일 대홍단벌에서 적들을 무리로 족쳐버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또다시 조국에 진군하시여 무산지구에서 적들을 통쾌하게 족치신 승리의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인민들은 일제가 아무리 날뛰여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있는 한 조국은 반드시 해방된다는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졌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조국진군의 길에서 거둔 승리의 기쁨을 안고 두만강을 건너 새로운 투쟁의 길에 올랐습니다.

《갑무경비도로》—일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로 나오는것을 막기 위하여 갑산-무산사이에 건설한 《국경경비도로》.

제36과
올기강에서의 낚시질

주체28(1939)년 여름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올기강기슭에 자리잡은 사령부밀영에 계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활동을 지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여러 부대들에서 오는 통신원들을 만나시여 부대들의 활동정형을 보고받으시였으며 정치공작원들과 밤늦도록 이야기도 나누시였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겨울철에 일제놈들을 크게 족칠 새로운 작전을 무르익히시였습니다.

그러던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름내 부대에 와있던 중국사람인 류통사의 동생을 돌려보내시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위치를 적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일제놈들을 올기강골안으로 밀려들게 하시려는것이였습니다. 그래야 부대가 새로운 싸움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좋은 조건을 마련할수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류통사의 동생을 돌려보내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가 곧 떠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원들은 길 떠날 차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른아침 전령병을 데리고 올기강으로 낚시질을 하러 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가에 이르시자 물속에 낚시줄을 드리우시였습니다.

구슬같이 맑은 물속에서는 산천어들이 꼬리를 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거퍼 여러마리의 산천어를 잡아내

시였습니다.

전령병도 물속에 낚시를 던졌으나 거기에는 영 고기가 물리지 않았습니다.

속이 달아난 전령병은 강아래우로 왔다갔다 하며 자리를 바꾸었지만 고기가 물리지 않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안달아하는 전령병을 보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낚시질에도 묘득이 있소. 묘득이란 고기의 성질을 알고 그 성질을 리용해서 잡는 법을 말하는것이요.》

그러시면서 잡으려는 고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있고 어떤 곬으로 다니고 어떤데 숨어있고 어떤것을 잘 무는지 모르고는 고기를 낚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니 전령병의 낚시에도 고기가 물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이런 재미로 낚시질을 하시는구만요.》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령병의 말에 크게 웃으시면서 낚시질하는 재미는 고기를 잡는데도 있지만 낚시줄을 드리우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재미가 그에 못지 않게 좋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참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아마 아직도 류통사 동생이 가닿지 못했겠지, 일제놈들이 《고발》을 받으면 벌의 둥지를 뚜져놓은것 같이 될거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천천히 낚시대를 거두시였습니다.

전령병은 이때에야 비로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낚시질을 하러 나오신 까닭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낚시질을 하시는 시간에도 휴식하신것이 아니라 류통사 동생의 《고발》을 받은 일제놈들이 얼마만한

군대를 이끌고 어느곳으로 어느때쯤이면 달려들것인가 하는것을 곰곰히 생각하시였던것입니다.

그날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잡아오신 산천어로 푸짐한 저녁을 치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적들이 달려들것이라고 생각되는 다음날 아침에야 부대를 이끄시고 올기강기슭을 빠져나가시였습니다.

뒤늦게야 올기강골안으로 기여들었던 일제놈들은 허탕을 치고 기진맥진해서 돌아가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가오는 겨울철에 일제놈들을 더 무자비하게 족치기 위해 새로운 투쟁의 길에 오르시였습니다.

제37과
혁명전사의 희생을 가슴아파하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8(1939)년 10월에 새로운 전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로 미리 정해놓은 비밀통로를 따라 넓은 지역을 돌면서 여러가지 전법으로 적들을 족치는 대부대 선회작전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전술대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거느리시고 백두산동북부에서 일제놈들을 크게 족치시였습니다.

그해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부대를 이끄시고 륙과송목재소의 적을 치는 전투를 조직하시였습니다.

오중흡련대장이 지휘하는 7련대는 이 전투에서 적의 병영을 공격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전투마다에서 언제나 앞장에 선 오중흡련대장은 이날도 자신이 직접 습격조를 데리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나갔습니다.

습격조원들은 적들의 병실을 둘러싼 철조망을 은밀히 끊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철조망을 끊었을 때 그만 잘못하여 거기에 매달린 통졸임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적들의 포대에서 기관총알이 비오듯 날아왔습니다.

련대장은 지체없이 돌격명령을 내리고 대원들의 앞장에 서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적들의 포대와 병실을 단숨에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실에는 한놈의 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센 공격에 급해맞은 적들은 맞설 생각도 못하고 모두 지하통로에 들어가 숨어버렸던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병실에 있는 놈들의 이불을 가져다가 지하통로입구에 쌓아놓고 기름을 친 다음 불을 질렀습니다.

세찬 불길과 함께 연기가 지하통로에 스며들자 놈들은 숨이 막혀 밖으로 기여나왔는데 몇놈이 총을 쏘며 발악하였습니다.

이때 전투를 지휘하고있던 련대장이 적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대원들은 달려가 련대장을 끌어안고 애타게 불렀습니다.

가까스로 눈을 뜬 오중흡련대장은 미더운 전사들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며 마지막말을 남기였습니다.

《동무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죽는것이 한스럽다고… 그분께 보고해주오.…》

오중흡련대장은 사랑하는 대원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중흡련대장이 전사했다는 뜻밖의 보고를 받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너무도 분하고 가슴이 아프시여 오중흡을 죽인 놈이 어디에 있는가, 오중흡을 죽인 놈들은 용서할수가

없다고 웨치며 적병실로 달려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적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대원들은 성난 사자마냥 적들을 사정없이 쓸어눕혔습니다.

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부대는 적들에게서 빼앗은 수많은 식량과 물자를 가지고 행군길에 올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그처럼 혁명에 충실하고 용감하게 싸우던 오중흡련대장이 조국해방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갔다는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으셨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수림속에 이르시여 희생된 혁명전사에 대한 추도모임을 조직하시였습니다.

손수 쓰신 추도사를 읽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음성은 크나큰 슬픔으로 하여 도간도간 끊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추도사의 구절구절은 슬픔에 잠긴 대원들의 가슴에 파고들었으며 그들의 흐느낌소리는 밀림속에 울려퍼졌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오중흡동무는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났으나 그의 열렬한 혁명정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입니다. 우리는 … 더 큰 승리를 쟁취하고 조선혁명을 반드시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원쑤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 조국을 기어이 해방할 굳은 결의를 안고 또다시 싸움의 길을 떠났습니다.

제38과
대마록구, 홍기하전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9(1940)년 2월말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두만강가까이로 나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일제놈들을 다시한번 크게 족치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런 결심밑에 그해 3월 대마록구전투를 조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대마록구방향으로 정찰조를 보내시였습니다.

정찰조는 새벽에야 돌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정찰조의 보고를 받으시고 한 지휘관을 부르시였습니다.

《방금 정찰조가 돌아왔는데 동무가 직접 한개 소조를 데리고 가서 대마록구목재소형편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자료를 알아가지고 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몇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대마록구에 대한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마록구의 놈들은 여러곳에 포대를 쌓고 철조망을 둘러치고있었습니다.

놈들은 이렇게 꾸려놓은 제놈들의 소굴로는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늘 부대들을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는데 내몰군 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온 그날에도 마을에는 얼마 안되는 놈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찰자료에 기초하여 부대에 전투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전투명령을 받고 두개의 습격조가 먼저 떠났습니다.

한 습격조는 놈들의 병실에 소리없이 다가가 적보초놈을 제끼고 재빨리 안으로 뛰여들었습니다.

다른 습격조는 놈들의 앞뒤산 포대로 쳐들어갔습니다.

급해맞은 적들은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달아나버렸습니다.

뒤이어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대원들은 놈들의 창고를 헤치고 쌀과 천, 옷들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 군대인가를 알기 쉽게 깨우쳐주었습니다.

대마록구전투를 승리로 끝마친 조선인민혁명군은 다시 행군길에 올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도와 스스로 짐을 지고 따라나섰던 수백명의 로동자들을 오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내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부대를 길잡이로 붙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발자국을 크게 내며 가라고 이르시고나서 자신께서는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발자국을 메우면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시였습니다.

대마록구가 녹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적들이 달려왔습니다.

놈들은 눈우에 난 발자국을 따라 밤새껏 헤매다가 날이 샐무렵에는 제놈들이 처음 떠났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말았습니다.

놈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전술에 또 속히웠던것입니다.

악에 받친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다시 산판을 헤매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적들은 또다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뒤를

따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뒤따르는 원쑤놈들에게 또다시 된매를 안기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슬쩍 빠져나와 자리를 옮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화라즈밀영에 10일정도 계시면서 대원들의 군정학습을 조직하시고 앞으로 싸워나갈 준비를 갖추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 뒤따르는 적들을 홍기하골짜기에 몰아넣고 족치기로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대는 멀리 이동하는것처럼 눈우에 발자국을 내면서 골짜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다음날인 3월 25일 부대는 전날과는 달리 발자국을 메우면서 은밀히 골짜기의 좌우측 산릉선을 타고 골짜기웃쪽으로 다시 올라가 유리한 지점에 매복하였습니다.

해가 질무렵에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숨어있다는것을 알리 없는 적들은 마음놓고 발자국을 따라왔습니다.

적들이 매복구역안에 들어서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순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기관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며 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습니다.

갑자기 된벼락을 맞은 놈들은 정신을 잃고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체 대원들에게 돌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대원들은 쏜살같이 달려나가 원쑤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혔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놈들은 바위나 나무뒤에 숨어서 악을 쓰며 그냥 총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돌격을 멈추게 하시고

놈들을 한놈씩 면바로 쏘아잡도록 하시였습니다.

대원들은 재빨리 알맞춤한 곳에 자리를 잡고 원쑤놈들을 겨누어 한놈한놈 모조리 쏘아눕혔습니다.

그러자 바빠맞은 놈들은 모두 손을 들고말았습니다.

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사령부가 있는 고지릉선으로 기여드는 한무리의 적들을 자신께로 유인하여 소멸하심으로써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안녕을 목숨으로 지키시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김정숙어머님의 배낭에 얹힌 양재기를 보니 거기에는 어머님께서 적들을 끌고 사령부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실 때 적탄에 맞은 총알자리가 두개나 나있었습니다.

홍기하전투는 그 어떤 원쑤놈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뛰여난 전술과 조선인민혁명군의 큰 힘을 당해낼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제놈들속에서는 날을 따라 도망가는 놈들이 늘어나고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나면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도망치는 놈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대부대선회작전은 걸음걸음이 빛나는 성과로 수놓아진 승리의 길이였습니다.

제39과
몸소 참나물김치를 담그어주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9(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에서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기 위하여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의가 있은 다음 수많은 소부대들과 소조를 무으시여 나라안팎의 여러곳으로 떠나보내시였

습니다.

그리고 몸소 소부대를 이끌고 여러 전투들을 벌리시면서 소부대들의 활동을 지도해나가시였습니다.

어느날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연길방향으로 가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득판에서 갑자기 맞다든 적들을 제놈들끼리 싸우게 하는 전술로 족쳐버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투가 끝난 뒤 어느 한 산속에서 대원들에게 숙영하도록 명령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시여 적정도 알아보실겸 산에 오르시였다가 참나물을 한아름 해오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뜯어오신 참나물을 작식대책임자에게 넘겨주시면서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식량은 좁쌀 한줌과 약간의 강냉이가 남아있을뿐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식량을 조금 갈라서 죽을 쑤고 참나물로는 김치를 담그라고 하시더니 김치를 담글줄 아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작식대책임자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지. 유격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만들어먹는 법도 알아야 하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 대원을 시켜 밥통에 소금물을 끓이게 하신 다음 손을 깨끗이 씻고 손수 나물을 다듬기 시작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참나물잎을 따시고 그 줄기를 마디마디 자르시였습니다.

이때 작식대책임자가 칼로 다듬지 않으시겠는가고 말씀드렸습

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물은 손으로 다듬어야 제맛이 나지 칼을 대면 쇠독이 들어 제맛이 안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물을 다듬으신 다음 그것을 소금물을 끓인 밥통에 넣고 뚜껑을 꼭 덮으시였습니다.

이윽고 식사준비가 다되여 밥통뚜껑을 여니 가지색이 도는 국물에서 시큼한 김치냄새가 확 풍기였습니다.

대원들은 일시에 《야!》 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풀밭에 둘러앉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몸소 담그신 참나물김치는 참으로 별맛이였습니다.

한 대원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어떻게 김치담그는 법을 알게 되셨는가고 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내가 무송에 있을 때 나의 어머님은 자주 이런 김치를 담가주시였소, 그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그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었소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 어머님은 소금마저 제대로 없는 살림이였지만 반찬 한가지라도 맛있게 해주기 위해 애쓰시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선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다 자식을 지극히 사랑해주는 훌륭한분들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은 오늘 우리 조국을 빼앗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을 갈라놓았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아들딸들인 우리는 반드시 나라를 찾고 해방된 조국땅에서 어머니들이 해주는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대원들의 가슴속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주고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대원들은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겹쌓이는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갔습니다.

제40과
네놈들이 찾는 혁명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부대활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로두구근방을 지나게 되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일제놈들이 욱실거리고있었습니다.

소부대는 날이 밝기 전에 연길과 로두구사이를 지나가려고 행군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연길과 로두구사이에 있는 큰길을 미처 벗어나기 전에 그만 날이 밝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에게 큰길옆에 있는 살림집에 들어가 어두울 때까지 휴식하다가 행군을 계속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등잔밑이 어두운 법이니 적이 바로 코앞에 있는 때일수록 더욱 대담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농가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갑자기 들어서는 군대를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주인에게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것을 알리고 저녁때까지 휴식하다가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밖에 나들지 말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대원들에게 적들이 나타나지 않

는가를 잘 살피게 하시였습니다.

날이 훤히 밝자 큰 길은 번잡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원들은 몹시 피곤했으나 누구도 자리에 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밖의 형편을 살피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을 보시고 감시병만 남겨놓고 모두 자리에 누우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여 소부대는 긴장한 속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였습니다.

점심식사가 거의 끝났을 때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대원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전투모자에 누르스름한 양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형편은 매우 위급하게 되였습니다.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싸창으로 놈들을 쏘아눕히실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놈들이 집안에 들어오자 몸을 일으키시며 《누구냐?!》 하고 놈들을 무섭게 노려보시였습니다.

그러자 맨앞에서 들어오던 놈이 대번에 기가 꺾여 《예, 예》 하며 허리만을 굽신거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놈들에게 들어오라고 호령하시였습니다. 놈들은 허리도 펴지 못하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대원들이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놈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을 싹싹 비비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의 무기를 빼앗은 다음 꽁꽁 묶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싸다니는 일제의 밀정들이였

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밀정놈들을 쏘아보시며 네놈들이 찾는 혁명군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놈들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겁이 나서 와들와들 떨기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을 쏘아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괘씸한 생각 같아서는 네놈들을 당장 죽여버리고싶지만 총알이 아까와서 죽이지는 않겠다만 우리가 떠날 때까지 헛간에 들어가서 꼼짝말고있다가 돌아들 가라!》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대원들은 밀정놈들을 모두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오를 이끄시고 큰길을 따라 또다시 행군을 계속하시였습니다.

밤에도 큰길은 복잡하였습니다.

이따금씩 총을 멘 놈들이 줄을 지어 마주 오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부대는 태연히 놈들을 스쳐지나면서 로두구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직하신 이 행군은 적들의 약점을 꿰뚫어보시고 대오를 이끄신 대담하고 슬기로운 행군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신심도 드높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끄심따라 소부대활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갔습니다.

제41과
최후공격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1945년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멸망의 길로 더욱더 줄달음쳐갔습니다. 일제놈들이 패망하는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결전준비를 다그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나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시면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군사훈련에서는 전술훈련, 사격훈련을 비롯한 여러가지 훈련을 다같이 내밀면서도 정찰훈련, 공병훈련, 무전훈련, 항공륙전대훈련에 힘을 넣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일제의 움직임에 대한 정찰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최후결전을 위한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편 전체 인민들이 일제를 꺼꾸러뜨리는 싸움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많은 공작원들이 국내의 여러곳에 파견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내의 곳곳에서 항쟁조직들을 지도하고있던 정치공작원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이 진격해나올 때 힘을 합쳐 싸울 준비를 다그쳤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을 멸망시키고 조국을 해방할 최후결전준비는 이렇게 갖추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완성하시였습니다.

당시 간백산일대와 훈련기지에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집결해있었는데 최후공격작전계획에는 이 부대들의 활동방향과 임무들이 밝혀져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의 임무도 밝혀져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빈틈없는 준비를 하신 다음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에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제히 총공격에로 넘어갔습니다.

간백산밀영에 집결해있던 부대들, 두만강연안에 집결해있던 부대들, 해안상륙부대에 속한 부대들 등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면서 간악한 원쑤 일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눕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이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사랑하는 조국의 도시와 마을들을 련이어 해방하도록 지휘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때를 같이 하여 국내곳곳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의 지도밑에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기 위한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인민들의 투쟁이 드세게 벌어졌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40년간 우리 인민을 비참한 식민지노예로 만들어버리였던 악랄한 일제의 통치는 끝장나고 우리 조국은 해방되였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라 하늘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중학교 제1학년용)

3판

집 필	최동철, 부교수 장리준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계순희	콤퓨터편성	전명희
장 정	리정혁	교 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2판발행	주체98(2009)년 11월 23일
3판인쇄	주체	3판발행	주체

교-　　　　　　　　　　　　값　　원